

柳夢寅 文集에 대한 書誌的 고찰

김 흥 백 *

-
- | | |
|-----------------------|-----------------------|
| I. 序論 | IV. 기타 필사본에 대한 서지적 고찰 |
| II. 유몽인 문집의 필사본 개관 | V. 結論 |
| III. 『默好稿』에 대한 서지적 고찰 | |
-

초록: 본고는 필사영인본 『默好稿』와 규장각 소장 필사본 2종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종 등 총 4종의 필사본을 문집총간본(목활자본) 『於于集』과 아울러 교감함으로서, 기왕의 『어우집』 판본에 누락된 작품들을 새로 추가하고 일부 각편의 창작시기와 수신자를 고증하는 한편, 중복 수록된 작품을 통해 일부 각편의 개작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본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어우집』 소재 각 텍스트의 정확한 창작정황과 개작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보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몽인 문학론과 작품의 엄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한 예비적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유몽인(柳夢寅), 어우집(於于集), 목호고(默好稿)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I. 序論

필사본 『默好稿』를 대상으로 한 서지적 검토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¹⁾ 그러나 『어우집』의 異本으로는 『목호고』 이외에도 규장각 소장 필사본 2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종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사본들에는 『어우집』과 『목호고』 어디에도 수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목호고』에 실제로 수록된 작품 편수 및 중복 수록된 작품들을 정리하는 한편,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들과의 교감을 통해 문집에 누락된 작품들을 추가하고 텍스트들의 정확한 창작정황과 시기 등을 고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柳夢寅(1559~1623)이 직접 엮은 저술은 원래 文이 50여권, 詩가 30권으로 도합 8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²⁾ 유몽인과 교유했던 금강산 榆岵寺의 僧 靈運이 그 중 40권을 간행하여 榆岵寺에 소장해 두었다.³⁾ 그러나 1794년에 정조가 김시습과 더불어 유몽인을 신원하면서 유몽인의 시문들을 찾았으나 대개 소실되고

-
- 1) 申翼澈, 1993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 태도」, 『서지학보』 10 : 申翼澈, 1998 『柳夢寅文學研究』, 보고사, 161~180면에 재수록. 본고에서는 후자의 면수를 인용한다.
 - 2) 柳榮, 『於于集』, 『新刊於于堂遺集跋』: 한국문집총간 63, 452면, “嗚呼! 祉已絕, 歲又久, 遺集八十餘冊, 散逸殆盡.” 및 柳榮 『於于集(附 於于野談)』, 『年譜』(景文社, 1977, 314면.) “及應製·疏·箚·列傳·行狀·輓章·哀辭·記·題·跋·長言大策·碑碣文, 共五十餘卷. 詩則己丑(1589) (...) 如斗大者, 共八十餘卷.” 참조, 연보는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811. 98-어-속)에 첨부된 것으로, 景文社 影印本 『於于集』(1977)에 수록되었다. 이하 연보는 景文社 影印本을 저본으로 삼는다. 한편 유몽인은 시장에 은거한 이래 3년 만에 엮은 私稿를 『自娛編』이라 명명하고 그 안의 詩文이 대략 오륙백 편, 諷誦 또한 수십백권에 이른다고 했다. “余嘗讀退之序, 有曰窮居荒涼, 草樹茂密, 出無驢馬, 因與人絕, 一室之內, 有以自娛, 盖退之, 窮者也. 娛人之所不娛而自娛之, 余味乎此, 名私藁曰自娛編, 謐處湖庄三載, 益其業, 著詩文大都五六百篇, 所諷誦亦數十百卷.”(『어우집』 후집 권4, 「自娛窩記」, 534면.)
 - 3) 徐有防, 『於于集』後集 권6,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於于堂柳公行狀」, 606면, “公所著述, 凡四十卷. 榆岵僧感公節義, 削劂藏于寺間, 被鬱攸以東, 柳文傳於世者, 不過斷爛若干卷及野譚四卷而已.”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임을 한탄한 것으로 보면,⁴⁾ 원래의 초고와 초간본은 일찍부터佚失된 듯하다. 유몽인의 초고 중 단편적으로 『於于野談』 3책이 ‘간죽(看竹)’이라는 제목으로 李奎象(1727~1799)의 집안에 전해졌고, 『어우집』 중 일부인 3권 분량의 시문이 야담과 더불어 유몽인의 조카 洪瑞鳳(1572~1645)의 집안에서 전해졌다.⁵⁾ 이규상의 「散言」에 따르면, 그가 ‘간죽’을 보게 된 것은 종숙부 李思彬(1714~?)의 집에서이고 이 책이 유몽인의 문집임을 확인시켜 준 이가 그의 아버지 李思質(1705~?)이다. 이사질에 따르면, 이 문집은 그의 부친이자 이규상의 조부인 李秀蕃(1665~1717)이 생전에 連山 金氏 집에서 초고를 빌려 문장이 좋은 까닭에 마침내 배껴 놓은 것이다. ‘간죽’이라는 제목을 달게 된 것은 유몽인이 의금부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文稿로 취급할 수 없어서라 하였다.⁶⁾ 한편 3권의 야담 외에 『어우집』 중 일부인 3권의 시문은 이규상이 尚政丞洞의 둘째 아우 집에서 머물다 만난 진사 洪景仁(1738~? 字 土鎮)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어우는 바로 나의 선조 어른인 鶴谷 洪瑞鳳 相公의 외삼촌입니다. 어우가 죽을 때

- 4) 『於于集』, 「御製貽贈判付」, 291면, “(...) 則朝家之所已施於時習者, 可不施於夢寅乎? 且予徵其稿之贍行於世者而見之, 其詩文幾篇, 太半是離騷壹鬱不平之鳴, 掩卷興感, 欲施加等獎異之典者久矣.”
- 5) 李奎象(1727~1799), 『一夢先生文集』 2 雜著(韓國歷代文集叢書 569), 「散言」(韓國文集編纂委員會 編, 景仁文化社, 1993, 99~103면); 안대희, 2005 겨울 「奇로 해석한 문학, 李奎象의 奇論」, 『문현과해석』 33, 193~198면에서 유몽인의 「산언」을 이규상의 奇論과 관련하여 고찰한 바 있다.
- 6) 이규상, 앞의 글, 100면, “向居公州時, 見直長從叔宅, 見題‘看竹’一冊, 披見果文之奇者也. 借來而問于家大人, 則此乃柳於于所著也. 在祖考參奉公在世時, 似借其草稿於連山金家, 以其文好故, 遂謄置, 而以其死之王獄故, 不可以視平人文稿, 自其借來處, 已題‘看竹’謠語云.” 종숙부는 이규상의 작은 삼촌 李思彬(1714~?)인 듯하다. 그는 李秀蕃의 삼남으로, 李思徽와 (이 규상의 부친인) 李思質의 동생이다. 자는 子文이고 거주지가 공주인 것으로 보아 공주에서 直長을 지냈다는 본문의 서술과 일치한다. 『崇禎三丙子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6024-77]) 참조. 가대인은 조선후기 실학자인 李思質(1705~?)이다. 자는 子野, 호는 異齋이다. 『韓山世稿』 권18, 「訓音宗編」에 訓民正音에 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그의 조부는 李秀蕃(1665~1717)으로 형조 낭관을 지낸 訥齋 李泰淵의 아들인 李亨稷의 아들이다. 이태연은 광해군 때 문신 李德泗의 아들이며, 이태연은 인조 때에 金自點 일파에게 탄핵을 받아 과직당한 바 있다.

구원하지 못하여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 집안에 전해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선조 와 자손들은 모두 어우의 문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 숙부께서 소싯적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분의 시문을 힘써 구하여 혹은 山寺에서 열기도 하고 혹은 각지의 古家에서 열기도 하여 지금 여섯 권으로 엮었는데, 시문이 세 권을 차지하고 『야담』이 세 권을 차지합니다. 모두 손으로 필사하여 보관해두었답니다. 그 가운데 『야담』 1책은 金用謙 어른이 빌려갔다가 잃어버려 지금은 다섯 권만이 남아있습니다.⁷⁾

홍서봉은 유몽인의 조카이면서 仁祖反正의 勳臣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어우집』 「연보」의 편찬자가 “광해군을 위해 立節한 자는 유몽인 한 명 뿐이기에 인조반정 훈신들이 유몽인을 죽인 것”이라며 논평하면서 “유독 괴이한 것은 홍서봉 또한 인조반정의 훈신인데 왜 어머니의 동생인 유몽인을 구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 인가?”라며 안타까워한 바 있다.⁸⁾ 그런데 위의 글을 살펴보면, 홍서봉이 유몽인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대손손 그의 시문을 수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山寺와 각지의 古家에서 찾아 모은 문집이 시문 세 권, 야담 세 권의 총 6권의 문집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원래 도합 80여권에 이르렀던 유몽인의 시문과 비교할 때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특기할 사안은 김용겸이 유몽인의 문집을 빌려갔다 분실했다는 진술이다. 주지하듯 김용겸(1724~1776)은 金壽恒의 손자이자 金昌緝의 아들로, 연암그룹의 지식인들에게 존장으로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洪大容과 朴趾源 등이 음악과 시문으로 연회를 베풀 때마다 선배로서 늘 자리에 함께 하곤 하였다 한다.⁹⁾ 18세기 노론 별열가의 인사들에게도 유몽인의 글

7) 위의 글, 101~102면, “洪進士曰：於于卽吾先祖鶴谷相公之渭陽也。於于之死，不能救之，悲絕之說，傳來於家間。以是，吾先祖子孫，皆知於于之文章。吾舍叔自少時力求其詩文於世人，或從山寺而得之，或從湖海舊家而得之，今輯爲六卷，而詩文居三卷，野談居三卷，皆手寫而藏之矣。野談一冊，則金用謙氏借失之，今存五卷。云。” 번역은 안대희, 앞의 글, 194면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8) “太師曰：爲光海立節者，柳夢寅一人而已。勳臣殺之固也。獨怪夫洪瑞鳳亦一勳臣，不救母之弟，何也？”『어우집(附 어우야담)』, 「연보」(경문사, 1977, 325면)

9) 成大中, 『青城集』 권6, 「記留春鳴樂會」(한국문집총간 248, 466면) 및 朴宗采, 『過庭錄』, 「燕巖湛軒風流」(박희병 옮김, 1988 『과정록』, 돌베개) 참조.

이 다소간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아울러 유몽인이 신원되기 이전에 그의 문집이 열독되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18세기 후반의 문인 유희柱(1755~1788)의 『欽英』이 있다. 여기에는 유만주가 閔景漣에게 빌려줬던 『於于堂集』 두 책을 되가져왔다는 기록부터 1784년과 1787년의 두 시기에 유몽인의 글을 탐독했던 경험과 독서후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만주는 『어우집』을 당나라 牛僧孺의 志怪 소설 모음집인 『幽怪錄』에 견주었으며 나아가 “글이 포괄한思考의 영역이 넓찍하고, 독자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능하며, 기세와 힘으로 충만해 있고, 변화가 구비되어 있다. 유몽인의 문장과 같은 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이다.”라 고평하였다.¹⁰⁾ 또 유만주는 유몽인이 70여 권이나 되는 문집 自編稿를 엮어 두고서도 출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하여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¹¹⁾

이처럼 문집으로 간행되지 못한 채 각지에 불완전하게 흩어져 유전되던 유몽인의 시문은 1832년(순조 3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7대 旁孫 柳栢과 8대 旁孫 柳榮茂 등에 의해 대대적으로 수집·편찬되어 木活字로 간행되었다.¹²⁾ 간행된 문집 또한 전·후집 도합 12권에 불과하나, 홍서봉의 집안에서 정리하고 이규상이 필사

10) 유희柱, 『欽英』 3책, 1784년 3월 28일 조, “夜閱柳夢寅『於于堂集』。此書亦東方之幽怪錄也。”; 유희柱, 『欽英』 4책, 1787년 1월 4일 조, “議大北中能文章者無出於柳夢寅之右。夢寅自言文稿有七十餘卷，既死，托夢于按嶺藩者，要刊行之，不則後必有禍。嶺藩竟不果刊，後以罪死，豈其祟與。還書于凜，送示『石田事畧』一冊，取來『於于堂集』二冊。（…）閱柳文，夜還續閱之。思谿·澤·農·淵，世以爲文章，而南·柳無稱焉，文章固亦有幸不幸也。（…）邊幅大，作用能，氣力充，變化具，如柳文者，亦東國之眞文章也。” 번역은 유만주(김하라 옮김), 2015 『일기를 쓰다』 1, 「유몽인」, 돌베개, 235~238면 참조. 이하 동일하다.

11) 유희柱, 『欽英』 4책, 1787년 1월 4일 조, “유몽인은 草稿로 써 둔 글 70여 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죽은 후에 영남에서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기 문집을 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거라고 했다 한다. 그 영남 관찰사가 결국 유몽인의 문집을 간행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죄에 걸려 죽었다 하니 아마도 그것이 빌미가 된 것인지。(夢寅自言文稿有七十餘卷，既死，托夢于按嶺藩者，要刊行之，不則後必有禍。嶺藩竟不果刊，後以罪死，豈其祟與。)”

12) 柳栢, 「新刊於于堂遺集跋」, 앞의 책, 452면, “先生沒後二百有十年壬辰(1832년, 순조 32년)秋, 七世旁孫栢拜手謹跋。”

한 3권의 시문집에 비하면 꽤 많은 글을 수습했다 할 수 있다. 물론 前集 편찬자인 柳槩은 유몽인의 글이 거의 산일되어서 남아 있는 것은 열에 하나, 둘도 못된다고 탄식했고¹³⁾ 後集 편찬자인 柳榮茂는 비용이 부족해 續集 약간 편과 연보 1편, 야담 4편은 간행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중 연보와 야담은 뒤에 간행되었으나, 속집 약간 편은 끝내 간행되지 못한 채 유실되었다.¹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유몽인의 저술 중 현재 일실된 것을 재구해보고, 나아가 현전하는 유몽인 문집의 이본을 대조하여 그 세부적인 차이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熹宗哲皇帝, 天啓元年, 辛酉(1621), 公六十三歲, 屏居西湖, 欲絕世離俗, 長往而不返, 收聚平生著述, 藏之篋笥。又撰次家狀世系, 名曰『柳氏檮杌』, 評解杜詩, 名曰『於于杜評』, 又臨古人書法篆隸楷草, 俱極妙絕, 名曰『筆苑叢談』。一號良菴, 良山也止也, 取止官而歸山之義, 或稱『良菴集』。一號默好子, 或稱『默好集』。一號自娛窩, 或稱『自娛集』。或稱『高興稿』, 或稱『副墨編』。自壬寅以後, 有友人別章, 及人有求, 皆以文應之, 及應製·疏·箚·列傳·行狀·輓章·哀辭·記·題·跋·長言大策·碑碣文, 共五十餘卷。詩則己丑(1589)釋褐以前, 有布衣錄, 庚寅(1590)爲江原亞使, 有關東錄, 轉遊金剛山, 有楓嶽錄, 辛卯(1591)爲質正官, 有星槎錄, 壬辰(1592)扈衛西關, 有扈從錄, 癸巳(1593)遊宋經略幕府, 有安興錄, 又爲三南御使, 有南繡錄, 甲午(1594)爲文學, 有春坊錄, 丙申(1596)爲書狀官, 有燕槎錄, 丁酉(1597)爲咸鏡御使, 有北繡錄, 戊戌(1598)爲平安御使, 有西繡錄, 壬寅(1602)豹直瀛官, 有王堂錄, 退居連山扶餘, 有湖甸錄, 癸卯(1603)爲京圻御使, 有畿甸暗行錄, 甲申(1604)乙巳(1605)入直政院, 有銀臺錄, 丙午(1606)移兵曹參議, 有騎省錄, 爲延慰使, 有西儕錄, 爲大司諫, 有霜臺錄, 出爲黃海監司, 有海營錄, 丁未(1607)還朝, 有終南錄, 戊申(1608)屏黜, 有終南散閒錄, 己酉(1609)爲謝恩使, 有朝廷錄, 辛亥(1611)休官而退, 有南歸錄, 有智異山, 有頭流錄, 壬子(1612)居興陽, 有瀛洲錄, 乙卯(1615)爲吏曹參判, 有天官錄, 丁巳(1617)爲漢城左尹, 有京兆錄, 戊午(1618)退處西江, 有西湖錄, 己未(1619)往來松泉, 有松泉錄, 雜載宿藁, 有拾遺錄, 如斗大者, 共八十餘卷。¹⁵⁾(밀줄-인용자, 이하 동일)

13) 위의 글, “嗚呼! 臜已絕, 歲又久, 遺集八十餘冊, 散逸殆盡. 余以旁裔, 尤庸感慨, 積歲年蒐錄於斷爛, 岑成若干編, 盖存者不能十之一. 然謀付剞劂氏, 廣其本, 傳之其人, 以述先生遺志之萬一.”

14) 柳榮茂, 『於于集』後集 後敍, 607면, “前集六卷, 刊出一百四十一帙, 後集六卷, 坐財匱, 只印四十帙, 至於續集若干編, 年譜一編, 野譚四編, 未能並梓, 深庸慨恨.” 만종재본 『어우야담』을 편찬한 柳濟漢은 발문에서 “柳槩이 문집 12권과 연보 1권을 간행”했다고 밝혔다.(경문사 영인본, 「어우야담 발문」, 1면 참조.)

柳槩이 작성한 위 연보에 의하면, 유몽인의 호는 於于 이외에도 艮菴, 默好子, 自娛窩 등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문집을 『艮菴集』, 『默好集』, 『自娛集』으로 명하거나 자신의 본관에 따라 『高興稿』로 불렸으며, 명조 문인 汪道昆(1525~1593)의 『副墨』¹⁶⁾을 죽어 『副墨編』으로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유금이 작성한 연보에는 『어우집』과 기타 필사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유몽인의 詩文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우선 현전하지 않은 저술로는 유몽인이 직접 家狀世系를 엮은 『柳氏檮杌』, 杜詩를 評解한 『於于杜評』, 전서·예서·해서·초서 등古人의 다양한 서법을 臨摹한 『筆苑叢帖』 등이 있다. 아울러 목활자본 『어우집』은 특정 시기의 시들을 분류하여 그 시기를 나타내는 소제목을 붙여 편차되었는데, 위 연보에서는 목활자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편차 제목들이 대거 발견된다. 가령 1590년 關東亞使로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들을 모은 〈楓嶺錄〉, 1592년 선조를扈衛하면서 지은 시들을 모은 〈扈從錄〉, 1593년 명군 經略 宋應昌의 幕府에서 노닐며 지은 시들을 모은 〈安興錄〉, 1594년 세자시강원 文學으로 재직할 때 지은 시들을 모은 〈春坊錄〉, 1596년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지은 시들을 모은 〈燕槎錄〉 등은 모두 목활자본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제목들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 중

15) 柳槩, 『於于集(附 於于野談)』, 「年譜」(景文社, 1977, 314면).

16) 『副墨』: 왕도곤이 1571년(隆慶5), 湖廣總督에 부임했을 때 9권으로 자편한 것인데, 현재 중국에는 연대미상의 4권본, 1574년(만력2) 5권본, 1597년(만력25) 7권본, 1633년 22권본이 현전한다. 『太函集』 황산서사, 1책 8~9면 및 4책 2814면 참조. 유몽인은 왕도곤을 비롯해 왕세정, 이반룡 등의 이른바 전후칠자의 문학론을 긍정하는 작품인 「題汪道昆副墨」(『어우집』 권6: 한국문집총간 63, 442면)을 저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四庫全書本 『副墨』을 참조했다. 汪道昆, 『副墨』 5卷, 『四庫全書存目叢書』 第119冊(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1997)

17) 한편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다음 자료는 유몽인의 『어우집』이 『柳於于集』이라는 제목으로도 필사되어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케 한다. 「大清乾隆三十年歲次乙酉時憲書」(觀象監 編, 신암 C8 A3 1765)가 그것인데,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건륭 30년 곧 영조 39년(1765, 乙酉)의 時憲書로, 도서관의 서지사항에는 英祖40(1764)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겉표지 이면에 “柳於于集”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승되어 오던 『柳於于集』의 필사본 이면에 1765년 이후 이상의 時憲書를 필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590년의 〈풍악록〉은 목활자본의 〈關東錄〉(1590)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나 1592년의 〈호종록〉과 1594년의 〈춘방록〉 및 1596년의 〈연사록〉 등은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 목활자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시들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목활자본에는 1592년과 1594년, 1596년의 시들이 편차된 소제목이 누락되어 있다. 이처럼 『연보』에서만 확인되는 『於于杜評』이나 『筆苑添帖』 등의 저술은 유몽인의 관심사가 야담 이외에도 폭넓었음을 드러내며, 아울러 1592~1596년이라는 특정시기의 시들이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일실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확인되는 유몽인 문집의 필사본들을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면모와 특징적 이본들을 개관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이본 대조를 통한 원문교감의 문제와 판본의 선후 관계 비정의 문제 및 이본을 통한 새로운 정보 추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 18) 문집총간 『於于集』의 전후집 각 권1~2에 수록된 시의 편차와 각 저술시기는 다음과 같다.(저술시기는 연보에 의거하여 필자가 첨부하였다.) 전집 권 1에는 關東錄(1590), 星槎錄(1591), 南繡錄(1593), 北繡錄(1597), 西繡錄(1598), 湖西錄(1602 : 원제는 湖甸錄이었음), 玉堂錄(1602), 畿甸暗行錄(1603), 銀臺錄(1604~1605), 騎省錄(1606), 西賓錄(1606), 霽臺錄(1606), 海營錄(1606), 終南錄(1607), 終南散閑錄(1608) 등 15개의 詩錄이 있으며, 전집 권 2에는 朝天錄(1609), 南歸錄(1611), 頭流錄(1611),瀛州錄(1612), 天官錄(1615), 京兆錄(1617), 西湖錄(1618), 拾遺錄(1619), 松泉錄(1619), 金剛錄(1622년 추정) 등 10개의 詩錄이 있으며, 후집 권 1에는 布衣錄(1589), 關東錄(1590), 星槎錄(1591), 北繡錄(1597), 西繡錄(1598), 湖西錄(1602 : 원제는 湖甸錄이었음), 玉堂錄(1602), 銀臺錄(1604~1605), 西賓錄(1606), 騒省錄(1606), 海營錄(1606), 終南錄(1607), 終南散閑錄(1608), 朝天錄(1609) 등 14개의 詩錄이 있으며, 후집 권 2에는 朝天錄(1609), 南歸錄(1611), 頭流錄(1611), 拾遺錄(1619) 등 4개의 詩錄이 있다. 이 중 연보의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되, 현전하는 『어우집』에는 존재하지 않은 詩錄으로 〈楓嶽錄〉(1590), 〈扈從錄〉(1592), 〈安興錄〉(1593), 〈春坊錄〉(1594), 〈燕槎錄〉(1596) 등이 확인된다.

II. 유몽인 문집의 필사본 개관

『默好稿』 이외에 유몽인 문집의 필사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본들이 확인된다.

- ①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필사본 『어우집』 3권(奎 4490)
- ②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필사본 『어우집』 23편(奎 7496)
- ③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 79편(古 819.52-Y92e)
- ④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 1책(경화당 D1 A48A)
- ⑤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選』 1책(대학원 D1 A48)
- ⑥ 연세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어우집』 93張(고서(II) 811.98 유몽인 2)
- ⑦ 연세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어우집』 3冊(全4冊)(고서(II) 811.98 유몽인 - 1~3)
- ⑧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어우집』 1張(BA0238-5)
- 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義貞公於于柳先生文集』 77長(古朝44-가144)
- 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필사본 『어우집』 1冊(69張)
(K4-6263 : 목활자본 『어우집』 초록)
- ⑪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 全』 不分卷 1책(51장)(D3B-1696)
- ⑫ 동국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新刊於于堂遺集』 不分卷1冊 42張
(고서 810.819 유35-8)
- ⑬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필사본 1종 『어우집』 12卷 6冊(D03B-0698)¹⁹⁾
- ⑭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소장 필사본 『어우집』 14卷7冊, 811.0819 유35○-2)
- ⑮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1종 『어우집』 1권 1책, 성암 4-818)²⁰⁾
- ⑯ 東洋文庫 소장 필사본 『어우집』 3권 3책²¹⁾
- ⑰ 日本靜嘉堂文庫本 『高興稿』 1책 古3649-198²²⁾

이 중 규장각 소장 『於于集抄』 및 고려대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 존경각 소장본, 건국대 소장본 등은 모두 문집총간본의 저본이 된 순조 32년(1832)의 목활자본을 필사한 것이다.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어우집』 3冊(全4冊)에는 예외적으

19) 속지에 “寫記：不肖[丁]淵泰謹受庭訓以書”라 적혀 있다. 일제시대 필사본이며 문집총간 목활자본 『어우집』과 동일하다.

20)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은 소장처인 성암고서박물관이 현재 폐관된 상태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서지사항으로는 1권 1책의 缺帙 상태임이 확인 가능하다.

21) 國立國會圖書館支部 所藏 東洋文庫 韓國典籍 目錄의 소장번호 879번에 『어우집』 3권 3책 이 보이는데, 간년이 ‘숙종 18년(1692년)’으로 되어 있어 추후 확인을 요한다.

22) 해외유출도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로 博泉 李沃(1641~1698)이 編撰한 『歷代修省便覽』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박천 이옥은 현종·숙종대의 문인으로 남인 중에서도 강경과 清南에 속한 문인으로 許穆·尹鑄 등과 함께 宋時烈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 그의 저술 『역대수성편람』 1冊 필사본(奎 11422)은 이옥이 禮曹佐郎으로 재직 중에 中國 歷代의 災異와 그에 대한 帝王의 정치경제적 조치들을 조목별로 열거하며 논평한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1668년 4월 조선 전역에 역병이 크게 돌자 이에 대한 時政急務로서 중국 역대의 史書인 『左傳』·『史記』·『漢書』·『宋史』 중에서 중국 제왕들의 歷代災異事에 대한 정치적 조치를 들어 上奏한 글이다.²³⁾ 곧 『역대수성편람』은 자연재해에 따른 역대의 정치적 후속조치들을 작금 조선에서의 백성구휼책과 인사동용의 현실적 전법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우집』에 수록된 「安邊三十二策」 등의 작품이 조선 전반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쇄신하기 위해 역대 주요 兵書들을 원리적(문헌적) 전거로 활용한 것과 흡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²⁴⁾ 따라서 이 연세대본은 유몽인의 『於于野談』이 연암 박지원의 傳들과 함께 賴유된 것과²⁵⁾ 함께 비교해 음미해 볼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우야담』이 연암의 단편소설들과 함께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賴유되었다면, 『어우집』은 『역대수성편람』과 함께 고대 문헌을 전법으로 활용한 정치적 쇄신책이라는 보다 진지한 독서물로 일정부분 읽혔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규장각 소장 필사본 2종(奎 4490,奎 7496)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義貞公於于柳先生文集』 등은 『목호고』와 마찬가지로 목활자본 『어우집』보다 앞선 시기의 것 이면서, 목활자본 『어우집』이나 심지어 『목호고』에도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

23) 上編에서는 총 25조의 救荒事實로서 春秋列國(6), 西漢(4), 東漢(4), 六朝(5), 唐(6) 등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下編에서는 총 23조의 救荒事實로서 唐紀(12), 五代紀(4), 宋紀(7) 등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事實’이란 주로 大水, 大雪, 大旱, 地震, 大火 등의 天災地變에 따라 租稅減免, 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의薦舉 등의 조치가 취해진 역사적 사실들을 가리킨다.

24) 拙稿, 2012 「유몽인의『安邊三十二策』 연구 -조선 중기 문학에서의 ‘政治’의 한 사례로서», 『민족문학사연구』 48.

25) 서울대 규장각에는 刊者·刊年 미상의 필사본 『於于野談』(1冊(41張) :奎 11918)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 후미에는 “附: 燕巖文抄”와 같은 표제 하에 연암 박지원의 「許生傳」, 「閔翁傳」, 「兩班傳」, 「烈女咸陽朴氏傳」 등이 첨부되어 있다.

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활자본 『어우집』에 수록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구와 내용에 있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작품들도 더러 확인된다. 규장각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는 필자가 교감한 결과, 목활자본 『어우집』을 후대에 필사한 것이 확실한 작품으로 필사본과 목활자본의 선후관계를 추정하는 자료로 참조할 예정이다.²⁶⁾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필사영인본 『목호고』를 포함, 규장각 소장 필사본 2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종 등 총 4종의 필사본을 문집총간본(목활자본) 『어우집』과 아울러 면밀하게 교감하여 기왕의 『어우집』 판본에 누락된 작품들을 새로 추가하고 나아가 일부 작품의 개작과정 및 이본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호고』를 비롯한 필사본 4종의 서지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장각 소장 필사영인본 『默好稿』 3책(卷 표시 없음. 이하 목호고라 약칭함)
: 편찬 및 필사 연기는 미상이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1937년 京城에서 아유카이 후사노신(鮎具房之進, 1864~1946)에 의해 발행된 필사영인본이다. 내용은 序·跋·記·書 등 저자의 文만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819.52-Y92m-v.1-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미국 UC버클리 도서관, 부산대 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조선대 도서관 등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²⁷⁾(추후 규장각소장본 『목호고』가 『默好先生文集』(경인문화사, 1997)으로 영인되었다.) 서문과跋문이 없어 간행경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간기와 인장이 “경종·현종조의 松泉 趙威明이 舊藏했었고, 오다 미즈

26) 규장각 소장 필사본 『於于集抄』(古 819.52-Y92e)에는 총 7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에서는 71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으나,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79편'이다. 구체적으로는 教書 4편, 啓 2편, 疏 1편, 箴子 1편, 書 3편, 呈文 2편, 上樸文 2편, 文 1편, 哀辭 1편, 輓章 1편, 列傳 1편, 題跋 4편, 論 1편, 序 42편, 記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작품이 추후 검토할 『목호고』나 국도본 『어우집』 등과 달리, 목활자본 『어우집』의 수록 순서를 비롯하여 제목과 본문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곧 목활자본 『어우집』을 초록한 필사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7) 선행연구에서는 『목호고』의 소장처로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만을 언급했으나(신익철, 앞의 책, 161면),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목호고』는 위 세 곳 외에 미국 UC버클리 도서관, 부산대 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조선대 도서관 등에도 동일한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루(尾田滿)²⁸⁾ 氏의 소장본이다.(景顯宗朝, 松泉趙威明 舊藏, 尾田滿氏 藏本.)”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천 조위명(1640~1685)이 원 소장자였음을 알 수 있다. 『목호고』의 규장각 해제에서는 이 자료를 1832년(순조 32)에 간행된 『어우집』에서 文만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자료는 원 소장자가 송천 조위명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목활자본 『어우집』이 간행된 것보다 최소한 150여년 이전에 필사된 문집이다.

또 규장각 해제에서는 목호고의 “수록된 글은 序 79편, 記 30편, 說 1편, 題跋 8편, 書 16편, 傳 1편, 雜著 5편, 哀辭 6편, 墓道文 12편, 應製文 12편, 解辨 5편, 文 10편, 疏箚 3편과 제목 없이 첨가된 雜文 1편이 있다.”고 하여 전체 작품수를 총 189편으로 계산했으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序 : 86편, 記 : 29 편, 說 : 1편, 題跋 : 10편, 書 : 24편, 傳 : 1편, 雜著(雜識 포함) : 11편, 哀辭 : 6편, 墓道文 : 13편, 應製文 : 3편, 上樑文 : 1편, 疏箚 : 6편, 文 : 7편”으로 도합 198편이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목호고』에 총 19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2편의 작품이 중복 수록되어 실제 글의 편수는 193편이라 했지만,²⁹⁾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목호고』에는 총 198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중복 수록된 작품은 2편이 아니라 모두 ‘4편’이다. 중복 수록된 작품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無盡亭記」³⁰⁾와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³¹⁾ 외에도 「鄉校里報禮曹狀後題」³²⁾와 「杏山記夢詩并序」³³⁾ 두 편이 더 확인된다.

28) 오다 미즈루(尾田滿) : 조선총독부의 상해파견 통역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29) 신익철, 앞의 책, 161면, “모두 19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無盡亭記」와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는 각각 똑같은 내용의 글이 중복 수록되어 있다. 이에 실제 글의 편수는 193편이다.”

30) 『默好先生文集』, 「無盡亭記」(경인문화사, 1997), 212~213면 및 350~351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96번, 148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31)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 위의 책, 34~35면 및 70~71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19번, 41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32) 「鄉校里報禮曹狀後題」, 위의 책, 92~96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47번, 48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33) 「杏山記夢詩并序」, 위의 책, 273~277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126번, 127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義貞公於于柳先生文集』 77長(古朝44-가144)
후손 柳左浩의 서문 첨부(이하 국도본이라 약칭함)

: 이 필사본에는 1794년(甲寅, 정조 18)에 저술된 「於于公伸冤大臣獻議」와 그 직후에 쓰인 直提學 徐有防(1741~1798)의 撰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필사본의 편찬자인 유좌호가 서문 말미에서 “噫! 若使余得志於後日, 其將繡梓而印冊, 一如公所願, 是吾志也. 是吾責也. 丁卯夏, 柳左浩 記.”라 한 것처럼 아직 목활자본으로 인쇄되기 이전 상황이므로, 이 서문의 작성시기인 ‘정묘’년은 아마도 1794년(甲寅, 정조 18) 신원된 아래 1832년(壬辰, 순조 32) 간행되기 이전의 1807년(丁卯, 순조 7)이라 짐작된다.

③ 규장각 소장 필사본 『어우집』(奎 4490) 3권(이하 규장각본 ❶로 약칭함)

: 권1에 詩 206수, 권2에 序 43편, 권3에 記 2편이 실려 있고, 권말에 1794년에 정조가 내린 「御製伸雪判付」가 첨부되어 있다. 필사시기는 1794년 이후 1832년 이전이다. 이 필사본에서 가장 특기할 사안은 다른 어느 이본에도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2편 실려 있다는 것이다. 권3의 記 2편인 「月出神夢記」, “金剛山, 山峻地近, 北常多大雪 (...)” 및 「古香山異聞記」가 그것이다. 도가적이고 신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어우집』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유몽인의 신선후향과 관련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권2의 「送義州賓天使李爾瞻序」는 규장각본 ❶과 함께 묵호고에만 수록된 작품인데, 당시 대북파의 영수인 李爾瞻(1560~1623)에게 준 送序이기에 후대에 누락시킨 듯하다. 이 작품은 묵호고에서는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³⁴⁾라는 제목으로 작품말미에 세주³⁵⁾ 및 五十韻 五百字의 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규장각본 ❶에는 세주와 시가 모두 누락되었으며 묵호고 작품 말미의 “余獨既爲序, 復以詩五百字者, 最舊故也.”가 규장각본 ❶에서는 “余獨既爲序, 復以詩三百字者, 最舊故也.”로 되어 있다.

34) 위의 책, 381면.

35) “王弇州, 『宛委餘篇』曰, 胡寅始生爲父, 不舉伯父, 安國育之. 及長, 父死不持父, 服胡致堂胡氏也. 又見『朱子語類』,”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 위의 책, 384면.

④ 규장각 소장 필사본 『어우집』(奎 7496) 23편(卷 표시 없음. 이하 규장각본

❷로 약칭함)

: 序 1편, 記 16편, 文 1편, 跋 2편, 題 1편, 呈文 1편, 疏箚 1편 수록. 규장각 해제에서는 총 21편이라 했으나 실제 확인해보면 23편이다. 해제에서 15편이라고 한 記가 실은 16편이며, 해제에서 빠트린 疏箚 1편[「玉堂箚子」]이 제목과 본문 일부가 빠진 채 마지막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위 네 종의 필사본 이본에는 목활자본 『어우집』과 그 수록 작품의 제목을 비롯하여 수록된 작품 및 시기별 작품 수록의 경향이 서로 조금씩 다르며 『어우집』에 전문이 누락된 작품들도 상당수 발견되고, 동일하게 수록된 작품이라도 『어우집』에서는 누락된 일부 내용이 초고에 가까운 형태로 실려 있거나 일부 자구상의 차이 또한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 중 『목호고』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III. 『默好稿』에 대한 서지적 고찰

『목호고』는 수록 작품수에 있어서나 기왕의 목활자본 『어우집』에 누락된 작품의 수에 있어서나 『어우집』 이본 중 가장 중요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찌감치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³⁶⁾ 본 절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 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바로잡고 보다 구체적으로 『목호고』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목호고』에는 총 198 편의 수록 작품 중 4편의 작품이 중복 수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無盡亭記」³⁷⁾ 와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³⁸⁾ 외에도 「鄉校里報禮曹狀後題」³⁹⁾ 와 「杏山

36) 신익철, 앞의 책, 161~180면.

37) 『默好先生文集』, 「無盡亭記」, 212~213면 및 350~351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96번, 148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38)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 위의 책, 34~35면 및 70~71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記夢詩并序」⁴⁰⁾ 두 편이 더 확인되는데, 각각 초고에 해당되는 작품과 이를 개작한 작품으로 중복 수록되어 있다.

-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 : 19번, 41번에 중복 수록. 각각 送詩를 생략한 작품과 수록한 작품이다.
- 「無盡亭記」 : 96번, 148번에 중복 수록. 초고본과 改作本 수록.
- 「鄉校里報禮曹狀後題」 : 47번, 48번에 중복 수록. 초고본과 改作本 수록.
- 「杏山記夢詩并序」 : (125번과 일부 겹치며) 126번, 127번에 중복 수록. 초고본과 改作本 수록.

이들 각각의 중복된 작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送東萊府使趙遂初存性詩序」는 목호고에 「送東萊府使趙遂初序 存性」이라는 제목으로 19번(34면)과 41번(70면)에 중복 수록되어 있는데, 『어우집』에는 「送東萊府使趙遂初 存性 詩序」(권3)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어우집』에 수록된 送詩인 “鯨湧東溟十二年, 馬洲蕭瑟隱重烟, 城頭畫角催紅旭, 臺上華筵近碧天, 秋日賓盤饒島橘, 夜風漁笛識夷船, 書生正坐談兵略, 醉撫龍泉看跔鳶.”가 목호고의 19번 작품에는 생략되어 있고 41번 작품에는 『어우집』과 동일하게 실려 있다. 또 19번에는 빠진 세주 “贈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 春秋館 成均館 事行通訓大夫 平海郡守 江陵鎮官兵馬同僉 節制使軍.”가 41번에는 실려 있는데, 이것이 『어우집』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41번 작품은 『어우집』에 수록된 마지막 시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19번 작품보다는 완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41번에 달린 주가 『어우집』에서 는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작품이 송시와 주를 덜어내고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 개작되어가는 양상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목호고 96번(212~213면) 작품인 「無盡亭記 見上改作」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개작된 작품이 뒤에 실려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개작의 정도가 크고 『어

19번, 41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39) 「鄉校里報禮曹狀後題」, 위의 책, 92~96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47번, 48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40) 「杏山記夢詩并序」, 위의 책, 273~277면. 필자가 부여한 작품 번호 126번, 127번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우집』 수록작과의 차이도 적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96번 초고작과 148번(350~351면) 개작 작품 및 『어우집』 수록작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無盡亭記 見上改作」 : 목호고 초고본(96번, 212~213면)

大凡有始而無不卒，造物者之意也。天下萬物，畢竟同歸於盡。而欲鄣其無盡者，違天理也。今松巖公構三楹小亭於垂老之年，以無盡扁之，其意何居？萬物之中，莫久者海岳，而東海桑泰山礪，曾不能以一瞬，而蘇軾，一拘儒也。(呻詠)乃敢貪天之物，以江上山間之清風明月爲無盡藏，不亦異哉？彼蓬蓬然起於北海，蓬蓬然入於南海，其入也非風之盡乎？但見宵從海上來，寧知曉向雲間沒，其沒也非月之盡乎？噫！海也而盡，岳也而盡，風也而盡，月也而盡，矧乎世之人？其知者有限，而不知者無限，其得者有窮，而不得者無窮，其生者有涯，而其死者無涯，如是而求無盡於有盡之域，是造物者之賊也。雖然，乾坤剝復之理，化化而生生，未嘗斯須間(呻詠)斷，宜君子之體之以自強不息，不息即無盡也。(추가) 於天理爲不違，然則孰爲近？其楚苦縣人之言乎？其言曰，“知足之足，常足。”今日到斯亭，得江山風月之趣無盡，宜主人之名之也。(呻詠)

② 「無盡亭記」 : 목호고 개작본(148번, 350~351면)

大凡有始而無不卒，造物者之意也。彼東海桑泰山礪，曾不能以一瞬，松巖公三楹小亭，始構諸垂老之年，烏得稱無盡也。而蘇軾，一拘儒也。(추가→어우집)江上山間之清風明月爲無盡藏，軾也，焉知無盡之爲有盡也哉？何者？蓬蓬然起於北海，蓬蓬然入於南海，是非風盡也乎？但見宵從海上來，寧知曉向雲間沒，是非月盡也乎？噫！海也而盡，山也而盡，風也而盡，月也而盡，人如欲無盡於有盡之域，是造物者之賊也。子不聞楚苦縣人之言乎？“知足之足，常足。”雖然，今日到斯亭，得江山風月之趣無盡，宜主人之名之也。(추가→어우집)

[3] 「無盡亭記」 : 『어우집』 수록작(권4, 392면)

大凡有始而無不卒，造物者之意也。天下萬物，畢竟同歸於盡，而欲勸^[41] 其無盡者，違天理也。今松巖公構三楹小亭於垂老之年，以無盡扁之，其意何居？萬物之中，莫久者海岳，而東海桑泰山礪，曾不能以一瞬，而蘇軾，一拘儒也。(추가) 乃敢貪天之物，以江上山間之清風明月爲無盡藏，不亦異哉？彼蓬蓬然起於北海，蓬蓬然入於南海，其入也非風之盡乎？但見宵從海上來，寧知曉向雲間沒，其沒也非月之盡乎？噫！海也而盡，岳也而盡，風也而盡，月也而盡，矧乎世之人？其知者有限，而不知者無限，其得者有窮，而不得者無窮，其生者有涯，而其死者無涯，如是而求無盡於有盡之域，是造物者之賊也。雖然，乾坤剝復之理，化化而生生，未嘗斯須間(추가)斷，宜君子之體之以自強不息，不息即無盡也(刪집)。於天理爲不違，然則孰爲近？其楚苦縣人之言乎？其言曰，“知足之足，常足。”今日到斯亭，得江山風月之趣無盡，宜主人之名之也。(추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개작 작품인 ②보다 초고작인 ①이 『어우집』 수록작인 ③에 가까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는 ①을 개작하는 과정에서 분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문장들을 대거 추가하면서 ③과의 편차가 심해졌다. 그에 반해 ①과 ③은 분량으로나 차구 상으로나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양자를 비교해 보면, 초고작인 ①에 없는 “一拘儒也”, ‘間’, “今日到斯亭，得江山風月之趣無盡，宜主人之名之也。” 등의 문장과 단어들이 『어우집』에 새로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것 중 ‘間’을 제외한 “一拘儒也”, “今日到斯亭，得江山風月之趣無盡，宜主人之名之也。”는 모두 개작 작품인 ②에서 새로이 첨가된 문장이다. 이로 보건대 『어우집』 수록작 「무진정기」는 원래 초고와 개작된 원고 두 편이 존재했는데, 후대에 『어우집』 편찬자가 개작된 원고 대신 원래의 초고를 목활자본 『어우집』에 수록하면서 개작된 원고의 일부 내용을 가져와 재구성하면서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1) 勸 : 諫와 같다. 祈求의 뜻이다. 출전은 다음과 같다. 『莊子』「齊物論」, “不悔其始之斲生乎?” 『莊子』의 원문과 번역은 안동립 譯註, 『莊子』(현암사, 1999) 참조.

이처럼 초고본과 改作本이 수록된 작품으로는 「鄉校里報禮曹狀後題」(47번, 48번) 및 「杏山記夢詩并序」(126번, 127번) 등이 있다. 앞 작품은 개작된 48번 작품이 『어우집』에 「題鄉校里報禮曹狀後」(권6)라는 제목으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고,⁴²⁾ 뒤 작품은 개작된 127번 작품이 『어우집』에 「杏山記夢詩序」(후집 권3)라는 제목으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묵호고에 실린 126번 초고작 「杏山記夢詩并序」는 바로 앞의 수록작인 묵호고 125번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와도 일부 내용이 동일하게 겹쳐 주목을 요한다.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는 그 마지막 문장이 “且念中國鄙夷我使臣, 謂貿貿皆是也, 豈不慨然. 今聞府中多擅紳具眼, 君亦以家連文士自道, 倘謂膚言有可采者, 仍求佳章, 冕其首, 使斯文托之不朽, 亦不敢辭也. 其不覆瓿爲也乎無?”인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126번 초고작 「杏山記夢詩并序」의 마지막 문장인 “爲不可逃於豈不慨然, 今聞府中多擅紳具眼, 君亦以家連文士自道,

42) 묵호고의 47번 초고 중 “子繼致勤於赤白里蒼之溟能不槩然, 然而自昔小邦之敬華使誇異數也. 數在上邦有恤也, 下國難憂也. 奉詔詞臣將命展禮之外詢風採謠繼商周雅頌 未嘗替也. 小邦君臣揄揚天人文藻之舉, 亦未嘗闕也. 故凡遇江山景象觸地起興其汎途觀賞之篇章交映館宇, 猶未足也. 袁輯前後使珠唾銳梓成帙而小邦蕪陋之作, 亦能攀鴻翼附驥尾齒列於璫珉之左目之曰, 皇華集. 播之中國, 爲天下傳觀, 其末古也. 焉者流星之耀浮查之光揚彩於張甘之海路, 而西京新語千金詞賦山斗文章復見於東方今日於逐世諸篇復增以雨仙新什共成新舊一通敬付諸歸撓他日粉署黃閣評謨之暇 閱詢曆唱酬之舊則小邦禮讓之習文明之謠事大畏天之誠懾 夫往牒傳記之謬 不妄譖毀之訛 得於藻詠中者, 較然, (...) 豈非小邦之一大幸而天下萬歲之所快覩者也歟.”가 묵호고 48번 원고에서는 “子繼基稷死於孝, 三世五人, 皆能私淑于家, 不求人之知之, 而奇行絕世, 所謂無其名而有其實者也, 鄉黨選其行誼表表者, 聞禮曹, 所謂有其實而有其名者也, 聞之禮曹而有司不之省, 朝家纂三綱行實, 而闕之不見錄, 所謂有其名有其實而世不用也, 處士服家訓, 砥操礪行, 爲當時高人, 朝家嘗徵辟典郡矣, 已而謝病去, 抵白首不起, 爰, 承旨如弊屣, 所謂有其名有其實而世欲用, 自不為世用者也, 今鄉黨撰次報禮曹狀, 屬延原相公著後語, 既能揚幽發潛, 振蟄而潤枯矣, 處士子惇五, 惇叙又徵夢寅係之, 是欲令三世五人在家修實者, 因鄉黨顯其名者, 禮曹之所未省者, 三綱圖書之所未錄者, 及處士之自不為世用者, 皆能暴而揚之, 使人入食無花之果, 立召貧之主, 開在樞之玉, 採深山幽谷之材與蘭, 播芳垂耀於當世來世, 其為不祿之賞, 不寵之榮, 雖金章文繡之美, 無以侈茲, 而世之不用之用, 猶勝於用之也者是也, 斯其為善述其孝也, 夢寅, 拘儒也, 區區寸管, 焉足以贊諸賢之德而紹名卿之語哉, 然而平生讀書, 粗知入孝出悌之方, 或可以續貂也夫, 嗚呼, 夢寅老矣, 見世之茂行高名多矣, 無所希而為之者, 處士也, 貞於前, 不黷於後, 處士也, 處士乎能獨有, 是故多之, 惇五, 惇叙乎勉之哉?”로 대거 개작되어 있고, 이것이 목활자본 『어우집』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倘謂膚言有可采者，仍求佳章，冕其首，使斯文托之不朽，亦不敢辭也。其不覆瓿也乎哉？”와 거의 동일하다.⁴³⁾ 126번 초고작 「杏山記夢詩并序」의 이 부분은 127번 작품에서 “爲不可逃於數外也如此。豈不大可笑也歟？遂感而爲之詩。佃獵元將哭泣并。誰知蝴蝶卽莊生。蒼天了了皆分別。白首營營底性情。石上精魂風月舊。枕中榮宦道途驚。遼關胡塞前緣重。梗泛休嗟萬里征。”과 같이 완전히 새로 개작되고 이것이 그대로 목활자본 『어우집』에 수록된다. 이로 보건대 125번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의 해당 부분이 별개의 작품인 묵호고 126번 「杏山記夢詩并序」으로 계승되는 한편, 126번 작품은 127번 작품으로 개작되면서 해당 부분이 완전히 새로 수정되어 훗날 목활자본 『어우집』에 수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묵호고』는 유몽인의 원래 초고 작품이 목활자본 『어우집』에 수록되기 까지의 개작 과정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묵호고를 통해 『어우집』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 창작의 전후 맥락 및 수신자의 정확한 이름 등을 확정 할 수 있다. 물론 묵호고의 오류를 『어우집』에서 바로 잡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⁴⁴⁾ 원래의 시호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한다거나,⁴⁵⁾ 저술된 작품이 누구를 위해 쓰인 것인지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돋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於

43) 한편 125번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은 『어우집』에 「永平府 贈李好學 皇明人 紀行詩序」(후집 권3)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어우집』 수록작의 마지막 문장과 자구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125번이 아니라 126번 「杏山記夢詩并序」이다. 『어우집』의 「永平府 贈李好學 皇明人 紀行詩序」(후집 권3)와 묵호고의 「杏山記夢詩并序」(126번)는 마지막 문장이 “爲不可逃於豈不慨然。今聞府中多擣紳具眼。君亦以家連文士自道。倘謂膚言有可采者。仍求佳章。冕其首。使斯文托之不朽。亦不敢辭也。其不覆瓿也乎哉？”로 동일하다. 반면에 묵호고의 125번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는 마지막 문장이 “其不覆瓿爲也乎無?”이다. 이로 보건대 『어우집』 편찬자가 묵호고의 해당 작품을 수록하되 마지막 몇 글자의 경우 126번 작품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44) 가령 묵호고의 「送宋德甫赴青州牧詩序 駒」(98번, 215면)이 『어우집』에서 「送宋德甫 駒 赴清州牧詩序」(권3)로 바로 잡혀 있다.

45) 가령 『어우집』의 「甘露亭記」(후집 권4)에는 “萬曆四十二年歲甲寅。高興後人嘉義大夫漢城左尹柳夢寅。記。”로 되어 있는 문장이 묵호고에 수록된 「甘露亭記」에서는 “萬曆四十二年歲甲寅。高興後人竭忠盡誠衛 聖功臣 嘉善大夫 漢城府 左尹瀛陽君 柳 記”(107번, 229면)로 되어 있다.

于集』에 「改製」(후집 권4)로 수록된 글은 묵호고에 「敎鄭汝昌家廟致祭後書」(58번, 123면)로 수록되어 있어 이 글이 성리학의 대가이자 甲子士禍에 연루되어 부관참시된 鄭汝昌(1450~1504)의 家廟에 대한 글임을 알게 해주며, 『於于集』의 「遜居寓想十詠序」(권4)는 묵호고에 「遜居寓想十詠 並序 爲韓孝仲作」(89번, 188면)로 수록되어 있어 이 글이 유몽인과 동시대의 문신인 石灘 韓孝仲(1559~1628)을 위해 저술된 것임을 알게 해주며, 『於于集』에 「沙溪堂記」(후집 권4)로 수록된 글은 묵호고에 「沙溪堂記 南原 房元震堂」(101번, 220면)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 글이 임진전쟁에서 義士로 활약했던 晚悟 房元震(1577~1649)의 堂에 대한 기문임을 알게 해준다. 또 『어우집』에는 「柳書狀別章帖序」(권3)로 수록된 글이 묵호고에는 「柳書狀別章帖序 淡」(120번, 256면)으로 수록되어 있어 柳書狀이 바로 유몽인의 조카인 柳淡⁴⁶⁾임을 알게 해준다.⁴⁷⁾

그 외에도 묵호고를 통해 『어우집』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해당 작품의 정확한 창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데, 가령 『어우집』의 「順天鄉校重修記」(후집 권4)에는 누락된 창작시기가 묵호고의 「順天鄉校重修記」(103번, 222면)에는 “萬曆三十九年季秋, 高興後人 柳夢寅記”와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또 『어우집』의 「敎平安道赴戰人父母妻子書」(권5)는 묵호고에서 「敎平安道赴戰人父母妻子書 甲午年 文學時 作」

46) 柳淡 : 자는 浩叔, 본관은 興陽이다. 광해 8년(1616)에 重試를 치른 바 있으며 弱善, 承旨 등의 벼슬을 한 바 있다. 아버지가 柳夢彪로 바로 유몽인의 형이다. 유역의 부친 柳夢彪와 유몽인은 興陽의 유명한 가문 태생으로 濟用監 主簿를 柳檉의 아들이다. 곧 柳淡은 유몽인의 조카이다.

47) 그 외에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은데, 가령 『어우집』에 수록된 「館試策題」(후집 권6)는 묵호고에 「館試策題 太學生 洪景艇 等 見此題 欲毀, 圍而火不得, 而改題乃定」(190번, 485면)와 같이 되어 있어 창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어우집』에는 「送回答使從事官 李實稷 入日本國辭」(권6)와 같이 통신사행을 떠나는 종사관의 이름이 '李實稷'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李實稷이란 이름은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어 작품의 수신자를 미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묵호고(119번, 253면)와 국도본(42번)에 수록된 동일 작품을 확인해보면 종사관의 이름이 「送回答使從事官 李景稷 入日本國辭」와 같이 李實稷이 아니라 '李景稷'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 종사관이 바로 1617년(광해군 9)에 종사관으로 통신사행을 다녀와 『扶桑錄』이라는 사행록을 남긴 李景稷(1577~1640)임을 알 수 있다.

(173번, 449면)으로, 『어우집』의 「送沈侄遊洪州序」(권4)는 묵호고에서 「送沈侄遊洪州序 戊子年 進士時 作」(174번, 451면)으로, 『어우집』의 「別尹時叔 昌鳴 陪使相歸營, 仍酬短絕以贐行序」(후집 권3)는 묵호고에 「別尹昌鳴時叔 陪使相歸營, 仍酬短絕以贐行序, 庚寅年 江原都事時 作」(175번, 454면)으로 정확하게 그 창작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우집』에서는 판독 불가능한 글자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묵호고는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⁴⁸⁾ 가령, 『於于集』에 수록된 「題金得之 大德 令公詩卷後詩序」(후집 권3)의 마지막 시에 붙은 주석인 ‘得■卷中多賦四郡’의 ‘■’가 문집 총간본 교감에서는 ‘詩’로 추정되었었는데, 묵호고에서는 ‘得之卷中多賦四郡’(55번, 107면)으로 표기되어 있어 원 글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작품은 묵호고에 수록된 시가 『어우집』보다 세 편이 더 많이 실려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보다 참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묵호고에서는 추가로 수록된 세 편의 시 뒤에 다음과 같은 詩評을 첨부하고 있다. “晉筆唐詩, 世孰知人生不遇, 太平時, 白頭飄轉將焉, 薄猿鶴蟲, 沙滿塞陲。” 또 『어우집』의 「畫帖六首」(권6)에 수록된 두 번째 시의 주석이 “右三雁在水上蘆下, 一雁飛欲下, ■半虧”로 한 글자의 판독이 불가한데, 묵호고에는 “右三雁在水上蘆下, 一雁飛欲下, 月半虧”(66번, 137면)로 되어 있어 정확한 글자 판독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어우집』과 묵호고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의 주석이 자구 상으로도 미세한 차이를 보여 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묵호고에 실린 「畫帖六首」의 첫 번째 시의 주석인 ‘右一人柳下騎驢, 一

48) 전술한 작품 중에도 이처럼 『어우집』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묵호고를 통해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앞에서 개작 과정을 검토했던 「永平府, 贈李好學 皇明人 紀行詩序」(후집 권3)는 마지막 부분에 “且念中國鄙夷我使臣, 謂貿■皆是也, 豈不慨然, 今聞府中多摺紳具眼, 君亦以■連文■自道, 倘謂膚言有可采者, 仍求佳章, 冕其首, 使斯文托之不朽, 亦不敢辭也, 其不覆瓿也乎哉?”와 같이 판독이 안되는 글자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이를 묵호고에 수록된 동일한 작품인 「永平府, 贈李好學 紀行詩序」(125번, 270면)의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면, “且念中國鄙夷我使臣, 謂貿賈皆是也, 豈不慨然, 今聞府中多摺紳具眼, 君亦以家連文土自道, 倘謂膚言有可采者, 仍求佳章, 冕其首, 使斯文托之不朽, 亦不敢辭也, 其不覆瓿爲也乎無?”와 같이 정확한 글자를 확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 작품의 인용은 묵호고를 통해 정확히 확정된 원문을 바탕으로 한다.

兒携琴向橋, 向橋外紙窮’가 『어우집』에서는 ‘右一人柳下騎驢, 一兒携琴向橋, 橋外紙窮’으로서 ‘向’이 누락되어 있고, 세 번째 시 주석이 목호고는 “右水上有竹叢, 木煙橫帶, 岸多苔, 無人無村”인데, 『어우집』은 “右水上有竹叢, 木煙橫帶, 斷岸多苔, 無人無村”으로서 ‘斷’이 새로 첨부되었으며, 네 번째 시 주석이 목호고는 “右松下二棋, 再無山”인데 『어우집』에서는 “右松下二人對棋, 有木無山”으로 수정되어 있다.⁴⁹⁾ 또 목호고에는 『어우집』에 누락된 시의 주석이 보존되어 있어 시를 이해하는 데 큰 참조가 되기도 한다. 가령, 목호고의 「聖節使李同樞令公春元立之 朝京驥行詩 幷序」(183번, 473면)는 『어우집』에 「送聖節使李同樞立之 春元 序」(후집 권3)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목호고에서는 마지막에 첨부된 시의 수련인 “處士幽居湖水西, 梅花已落鶴辭棲” 뒤에 “西湖舊多水, 鶴棲銀杏樹, 今絕無影響, 湖之人憂之.”라는 세 주가 달려있는데, 『어우집』에서 모두 누락되었다.⁵⁰⁾

한편 목호고와 비교해 검토하면 『어우집』에는 체신이 손상이 될 수 있거나 혹 비유가적이거나 주자에 비판적인 내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누락되어 있는데, 가령 『어우집』의 「哭李而立令公哀辭」(권6)에는 목호고에 수록된 「哭李而立令公哀辭」(76번, 159~160면)의 말미 주석인 “公與余妾對門居”가 누락되어 있다. 유몽인의 妻이 등장하고 있어 체신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 여겨 편찬자가 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어우집』의 「送寧邊判官南 斗瞻 詩序」(권 3)는 목호고에 수록된 「送寧邊判官南 斗瞻 詩序」(35번, 59~61면)의 주석인 “往年, 與南子爲隣並, 南子喪室, 方在殯, 吾兩妾及子婦一時要駕警號曰 : 南子之妻, 被髮狂奔, 入我室而呼號, 俄而窓戶忽明, 拓窓見之, 其殯矣. 呼僮僕, 往救之, 故第五句及之.”가 모두 누

49)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목호고에 수록된 「送柳老泉朝天詩 幷序 潛」(185번, 477면)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어우집』에 「送柳老泉 潛 朝天詩序」(권3)로 실려 있는데, 목호고에 수록된 시의 한 구절인 “漱水猶堪漂穴蟻, 東歸須共白鷗盟”가, 『어우집』에는 “漱水堪憐漂穴蟻, 東歸須赴白鷗盟”로 수정되어 있다.

50) 참고로 세주를 포함한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處士幽居湖水西, 梅花已落鶴辭棲。(西湖舊多水, 鶴棲銀杏樹, 今絕無影響, 湖之人憂之.) 藍輿朝傍白鷗渚, 漁艇宵橫青草堤. 凉涼破壁月來照, 尺蘭坡歸夢少. 遼寒風塵戎馬驕, 烏紗何似臨江嘯.”(「聖節使李同樞令公春元立之 朝京驥行詩 幷序」(목호고 183번, 473면)

략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한 귀신 이야기라는 점과 ‘吾兩妾’이라는 기록을 꺼려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이 주석은 마지막 구절인 “故第五句及之”라고 유몽인이 말하고 있듯이, 시의 5번째 구인 “夢驚被髮哀隣火”⁵²⁾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정횡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어우집』에 실린 「題詩經鄭衛風後」(후집 권4)는 묵호고의 동일 작품 말미의 주석인 “『孟子』에서 ‘책을 전부 다 믿는 것은 책이 없느니만 못하다.’라 했으니 나 또한 先儒의 말에 대해서 전부 다는 믿지 않는다.(傳曰, 盡信書, 不如無書, 愚於先儒之言, 亦不盡信也.)”(93번, 199면)라는 대목을 누락시키고 있다.⁵³⁾ 「題詩經鄭衛風後」는 鄭衛風을 淫辭로 배척하는 송대 주자학자의 경직된 『詩經』 해석을 비판하고 鄭衛風에는 오히려 군신과 봉우 간의 회합하는 때에 感發하는 것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빗대어 읊조렸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우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긍정한 작품인데,⁵⁴⁾ 이를 위해 유몽인은 오히려 『孟子』「盡心章」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거로

51) 그와 관련된 논의는 신익철, 앞의 책, 165면 참조.

52) 주석 바로 앞의 시는 다음과 같다. “吾顛未冠交先子, 早達誰知竟促忙, 莊老盆歌惠子吊, 翏宗途哭阿咸傷, 夢驚被髮哀隣火, 梳挾長翰醉銜觴, 龍蠖元來人不管, 好將茵鼎慰蒼堂.” 본문에서 인용한 주석은 유몽인의 말대로 이 시의 밑줄 친 부분인 “夢驚被髮哀隣火”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참고로 『어우집』에 이 시는 두 번째 구의 네 번째 글자가 “早達誰■竟促忙”과 같이 판독불가능한데, 묵호고에 수록된 해당 부분인 “早達誰知竟促忙”를 통해 이 글자가 ‘知’임을 확정할 수 있다.

53) 『어우집』에 누락된 이 문장은 국도본에도 묵호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題詩經鄭衛風後」(국도본, 29번) 참조.

54) 신익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유몽인이 鄭衛風을 자유로운 정감의 표출로 긍정했다고 평가 했으나(신익철, 앞의 책, 165면 참조.), 「題詩經鄭衛風後」 어디에도 鄭衛風을 “자유로운 정감의 표출”로 긍정한 평가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暨今思之, 盖詩者, 發於情, 諷於口者也. 自古詩人, 或有感遇而起比興, 多托之男女俚語. 故其說雖若譏呢, 然其實或感發於君臣交友際會之間, 讫其說以諷詠之, 故太史公曰, 詩三百, 大抵賢聖發憤之所爲作也, 古人以風雨鶴鳴, 稱君子臨亂不改其操. 曹孟德亦以子衿鸞鳳鳴爲時賢, 歌於赤壁. (...) 屈原作離騷, 多舉男女事以寓說, 甚至稱帝王后妃求配己. 李白自道能繼大雅, 而其詩必用神仙美女語, 語而及之. 是皆因竄譎流徙戀君懷賢, 以比興於騷詩耳. 後世未聞以好色辜屈原, 而獨王介甫訾李白特甚. 是豈知言者乎?”(「題詩經鄭衛風後」)에서처럼 모두 군자가 난리에 처하여 자신의 지조를 바꾸지 않는 노래이거나 당시의 현자를 위해 노래한 것이며 혹은 유매 가 있으면서 임금을 사모하고 현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比興’으로서 읊은 것이라면서 鄭衛風을 긍정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목호고에는 목활자본 『어우집』에 누락된 9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목록을 수록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月波亭記』(36번, 61면), 「恩波亭記 趙國弼亭子」(51번, 99면), 「李應敎挺元慈親輓詞并序」(60번, 126면), 「中江罷市辨誣啓辭」(117번, 245면), 「呈嚴都事萬知州文」(149번, 351면),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162번, 381면), 「(제목없이)余亡室貞夫人申氏(...)'로 시작하는 글」(164번, 389면), 「送吏曹參議李文甫以都司迎慰使隨乃公遠接使如龍灣律并序」(187번, 481면), 「瞻破鬼說」(189번, 483면)

각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 소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검토되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으나,⁵⁵⁾ 『어우집』에 누락된 이상의 작품 목록 중 몇 작품은 『목호고』 이외의 필사본 이본들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은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月波亭記」(목호고 36번, 61면)는 국도본에도 14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규장각본 ②에도 6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 「恩波亭記 趙國弼亭子」(목호고 51번, 99면)는 국도본의 18번째 작품에 「恩波亭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⁵⁶⁾ 규장각본 ②에도 10번째 작품에 「恩波亭記 趙國弼亭也」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목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작품이다. 그리고 목호고의 「李應敎挺元慈親輓詞并序」(목호고 60번, 126면)는 국도본의 46번째 작품에 동일한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어우집』에는 누락된 작품이다. 또 목호고의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목호고 162번, 381면)는 국도본이나 규장각본 ②에는 보이지 않으나, 규장각본 ①에 「送義州賓天使李爾瞻序」(규장각본 ① 5번 작품)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본 ①의 「送義州賓天使李爾瞻序」는 목호고의 해당 작품과 제목에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본문에 있어서도 목호고의 “余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몽인은 鄭衛風을 자유로운 정감의 표출로 평가했다기보다는, 지극히 유가적인 군신·봉우 관계에서의 뜻을 의탁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55) 신익철, 앞의 책 참조.

56) 다만, 국도본에 수록된 「恩波亭記」는 목호고와 달리 恩波亭이 누구의 정자인지를 알려주는 세주인 “趙國弼亭子”가 누락되어 있다.

獨既爲序，復以詩五百字者，最舊故也。”가 규장각본 ❶에서는 “余獨既爲序，復以詩三百字者，最舊故也。”로 되어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이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목호고의 細註⁵⁷⁾와 첨부된 詩 또한 규장각본 ❶에서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月波亭記」, 「恩波亭記」, 「李應教挺元慈親輓詞并序」,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送義州賓天使李爾瞻序」)는 목호고, 국도본, 규장각본 ❶, 규장각본 ❷ 등의 필사본에만 수록되고 목활자본 『어우집』에는 전부 누락되었다. 이것은 이들 세 작품의 수신자가 모두 광해군조에서 정권을 좌지우지 하며 인조반정 이후 주살당한 정치적 실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月波亭記」의 月波亭은 柳希發(1568~1623)의 정자인데, 유희발은 주지하듯 광해군의 처남으로 鄭仁弘(1535~1625), 李爾瞻(1560~1623)과 함께 大北派에 가담하여 정권을 좌지우지하며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기 위한 폐모론을 주도한 柳希奮(1564~1623)의 동생이다. 유희발 역시 인목대비 폐모론에 적극 동참했다. 또 「恩波亭記」의 恩波亭은 趙國弼의 정자인데, 조국필 역시 柳希奮의 부친인 柳自新的 사위로 대북파의 일원이다. 「李應教挺元慈親輓詞并序」의 李挺元(1567~1623) 역시 鄭仁弘·李爾瞻과 함께 대북파의 일원으로서 柳永慶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며 뇌물을 받고 벼슬을 천거하는 등 광해조에 전횡을 일삼은 정치가이다. 또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는 제목에 명시된 대로 대북파의 영수인 李爾瞻을 전송하며 지은 送詩와 序이다. 유몽인이 이를 작품을 쓴 것은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諷諭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지만, 후대의 『어우집』 편찬자는 인조반정 이후 대역죄인이 된 광해조의 대북파 권세가들에게 준 글임을 꺼려하여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⁵⁸⁾

57) “王弇州, 『宛委餘篇』曰, 胡寅始生爲父, 不舉伯父, 安國育之。及長, 父死不持父, 服胡致堂胡氏也。又見『朱子語類』。”(「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 『默好先生文集』, 384면.)

58) 「月波亭記」에 대해 정치적 풍유의 의미로 지었음을 밝힌 부분은, “柳希發月波亭記曰, 觀月之闕於胸眺而沖於肺魄, 君子以, 知物欲之可淨也。至若分清光於白屋, 及餘瀾於四荒, 使天下同得之物, 毋作我一家之私, 則斯亭之月也波也, 皆在吾方寸中, 以是而貢之吾君, 豈不爲萬世清明之治乎?”(「與榆岵寺僧靈運書」, 『於于集』 권5, 419면)이며, 「恩波亭記」에 대한 부분

이처럼 목호고 이외에도 국도본, 규장각본 ①, 규장각본 ② 등의 필사본들은 목활자본 『어우집』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상당수 작품의 원 모습을 확인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본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네 개의 이본은 시기적으로도 모두 목활자본 『어우집』 이전에 필사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근거를 들고 이어서 각 필사본 간의 선후관계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IV. 기타 필사본에 대한 서지적 고찰

먼저 목호고와 국도본 및 규장각본 ①에는 각각 「送冬至使尹僉知 存中 序 敬立」(목호고, 10면), 「送冬至使尹 敬立 僉知存中序」(국도본, 3면), 「送冬至使尹僉知存中序」(규장각본 ①, 18번 작품)의 조금씩 다른 제목으로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목활자본 『어우집』에는 「送冬至使尹僉知 存中 敬立序」라는 제목으

은 “今觀漢上鄰斯亭者，東曰水月，駙馬之所度土，南曰押鷗，宰相之所胥字，水月不係於椒掖，鷗鳥豈併於權貴，俱不稱其實，允矣公之名亭也，玩物而不忘君，其忠矣哉!”(앞의 글)이다. 참고로 선행연구에서는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에 대해서도 유몽인이 「與榆帖寺僧靈運書」에서 諷諭의 의미를 담아 지은 것임을 밝혔음을 「與榆帖寺僧靈運書」의 다음 한 대목을 근거로 들고 있다. “自主上臨御以來十四載于今，沉淪散地，不得陪外庭未議者七年，身嬰罪罟，閉戶於終南弊廬，放浪於西湖漁釣之徒者，已積四年，(其間荷公汲引，軒騰於玉堂銓局，只三年，草而止)雖欲與公曰是曰非於朝堂，余雲泥路隔，視朝風馬牛，何哉!” 그런데 이 인용문은 「與榆帖寺僧靈運書」와 함께 「送觀松李相國爾瞻赴義州賓天使古詩五十韻并序」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괄호 안의 “其間荷公汲引，軒騰於玉堂銓局，只三年，草而止”는 목활자본 『어우집』에는 누락되어 있고 목호고에만 수록되어 있다. 그 번역은 “그 사이 공의 추천에 힘입어 玉堂과 銓局에 오르게 된 것도 단지 삼년 정도에 그쳤을 때입니다.”로, 유몽인이 나중에는 인목대비 폐모 시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처음에는 같은 북인인 李爾瞻의 추천으로 벼슬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어우집』 편찬자는 이이첨에게 보낸 글은 전부 누락시키고, 「與榆帖寺僧靈運書」에 부분적으로 포함된 送序 조차 민감할 수 있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채로 수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로 수록되어 있는데, 앞의 3종의 필사본과 목활자본 『어우집』 간에 자구의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가령, 목호고와 국도본 및 규장각본 ①에서는 공히 “我東之通中國, 古也. 在今皆可徵. 始漢置樂浪等三郡. 我東始學華語. 故今稱漢語也可徵. 至唐.”이라 되어 있는 대목이, 『어우집』에서는 “我東之通中國, 古也. 在今皆可徵. 始漢置樂浪等四郡. 我東始學華語. 故今稱漢語也可徵. 至唐.”과 같이, 필사본의 ‘三郡’이 『어우집』에서는 ‘四郡’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始漢置樂浪等’은 한나라가 우리나라의 서북부지역에 설치한 樂浪 · 臨屯 · 眞蕃 · 玄菟 등 4개의 군현. 곧 ‘漢四郡’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어우집』은 필사본에서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어우집』의 오류를 필사본을 통해 바로잡는 경우도 가능한데, 가령 『어우집』에 실린 「送回答使從事官李實稷入日本國辭」(권6)라는 작품은 통신사행을 떠나는 종사관의 이름이 ‘李實稷’으로 되어 있다.⁵⁹⁾ 그런데 李實稷이란 이름은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어 작품의 수신자를 미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호고(119번, 253면)와 국도본(42번)에 수록된 동일 작품을 확인해보면 종사관의 이름이 「送回答使從事官李景稷入日本國辭」와 같이 李實稷이 아니라 ‘李景稷’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 종사관이 바로 1617년(광해군 9)에 종사관으로 통신사행을 다녀와 『扶桑錄』이라는 사행록을 남긴 李景稷(1577~1640)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규장각본 ②의 22번 작품인 「免宴再度呈文」은 목호고에 동일한 제목으로 122번(259면)에 수록되어 있는데 『어우집』에는 「免宴禮部再度呈文」(권5)으로 ‘禮部’가 새로 삽입되어 있으며, 이 작품의 서두가 목호고와 규장각본 ②에서는 모두 ‘謹呈爲小邦遭恤’로 시작하는 데 반해 『어우집』에서는 “朝鮮國陪臣聖節兼謝恩使刑曹參判某等謹呈. 爲小邦遭恤”로 수정되어 있다. 이는 목호고와 규장각본 ②가 국도본 및 규장각본 ①과 마찬가지로 『어우집』보다 선행본임을 드러낸다.

59) 목활자본 『어우집』을 실제 확인해보면 「送回答使從事官李■稷入日本國辭」(권6)와 같이 ‘李■稷’의 가운데 글자가 사실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이 글자를 문집총간 DB 입력자가 그 자형 상 가장 근사한 글자인 ‘實’로 입력한 듯한데, 이를 필사본 이본을 통해 역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로 국도본에 수록된 「嬪婦詞」를 거론할 수 있다. 인조반정 직후 유동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詩로 더 유명한 이 작품은 묵호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어우집』과 함께 국도본 및 여러 후대 문인들의 문집 곳곳에 실려 있는데, 시 배열과 자구 상에 차이가 보여 주목을 요한다. 먼저 목활자본 『어우집』과 「연보」에는 “七十老嬪婦, 單居守空壺, 慶讀女史詩, 頗知姪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題寶蓋山寺壁 癸亥」, 『於于集』 권2 〈金剛錄〉; 한국문집총간 63, 344면 및 「年譜」, 景文社 影印本 『於于集』(1977), 316면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으로 실려 있는데,⁶⁰⁾ 이 시가 국도본에는 「嬪婦詩 (隱於西山時, 作此, 以自況伏節, 時以此詩, 進于仁祖而死.)」(20번)라는 제목 하에 “七十老嬪婦, 端居守空壺,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賞讀女史書, 稍知姪姒訓,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국도본 20번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향현과 경련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며, 자구상으로는 『어우집』의 ‘單’, ‘慶讀’, ‘女史詩’, ‘頗知’ 등이 국도본에서는 ‘端’, ‘賞讀’, ‘女史書’, ‘稍知’ 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¹⁾

그런데 李肯翊(1736~1806)의 『練藜室記述』이나 成海應(1760~1839)의 『研經齋全集』 등의 문헌에서는 「嬪婦詞」가 “七十老嬪婦, 端居守空壺, 傍人勸之嫁, 美男顏如槿, 慶誦女史詩, 猶知姪姒訓, 白首爲春容, 寧不愧脂粉.”와 같이 실려 있어,⁶²⁾ 각 연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 자구상으로는 국도본과 목활자

60) 선행연구에서는 목활자본 『어우집』의 316면에서 嬪婦詞를 “七十老嬪婦, 端居守空壺, 慶誦女史詩, 頗知姪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와 같이 인용했다. (신익철, 앞의 책, 102면 참조) 여기의 『어우집』은 景文社 影印本 『於于集』(1977)을 가리키는데, 실제 해당 면을 살펴보면 거기에 수록된 嬪婦詞는 정확히 “七十老嬪婦, 單居守空壺, 慶讀女史詩, 頗知姪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으로 ‘單’과 ‘讀’을 ‘端’과 ‘誦’으로 잘못 인용했다.

61) 한편 『어우집』의 부록에 실려 있는 서유방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題詩于寶蓋山寺壁曰, 七十老嬪婦, 單居守空壺, 慶誦女史詩, 頗知姪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徐有防, 『於于集』後集 권6,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於于堂柳公行狀」, 603면.) 물론 『어우집』 본문과 연보에 수록된 작품에서의 ‘讀’이 ‘誦’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 『어우집』의 것이 흔히되어 있으며 “傍人勸之嫁, 美男顏如槿”이 함련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도본의 시에 보다 가깝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 또한 국도본이나 여타 문집에서처럼 경련과 미련이 “嘗讀女史書, 稍知姪姒訓, 白首爲春容, 寧不愧脂粉.(일찍이 女史⁶³⁾의 시를 읽었고 太姬·太姒⁶⁴⁾의 가르침도 조금 알고 있으니, 하얗게 센 머리에 화장을 한다면 어찌 연지 분가루에 부끄럽지 않으리오?)”로 배치되어야 문맥 상 보다 자연스러운 대비적 효과 위에 시적 화자의 節操가 보다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듯하다.⁶⁵⁾ 이로 보건대 婦婦詞의 경우를 통해

- 62) 李肯翊과 成海應이 인용한 婦婦詞는 각각 다음과 같다. “七十老嫗婦, 端居守空壺,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慣誦女史詩, 猶知姪姒訓, 白首作春卷, 寧不愧脂粉.”(李肯翊, 『練藜室記述』 23권 〈仁祖朝故事本末〉, 「柳夢寅의 옥사」, 고전국역연구회, 1977), “柳於于詩主奇險, 故少平和之音, 然其寡婦詩, 獨懇惻感人, 詩曰, “七十老嫗婦, 端居守空壺, 傍人勸之嫁, 美男顏如槿, 慣誦女史詩, 頗聞姪姒訓, 白首爲春容, 寧不愧脂粉.”當仁祖反正之初, 方誅鋤逆黨, 以一衆志, 於于被鞠, 誦此詩以明其志, 遂坐大逆. 其姪潔當光海詩, 門戶華盛, 獨自樵牧養母, 亦累於于被謫, 無後嗣, 其蹟湮沒, 甚可惜也.”(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 55, 「詩話」, 〈柳於于詩〉 : 한국문집총간 279, 486면) 그 외에도 婦婦詞에 대해 논의한 글로는 李瀨, 『星湖集說』 제29권, 「詩文門」, 〈婦婦詩〉, (景仁書林, 1967: 『국역 성호사설』, 민족문화 추진회, 1977) 및 『正祖實錄』 권40의 「정조 18년 갑인(1794, 건륭59)」 <9월 30일(갑인)>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들은 婦婦詞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아 교감의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婦婦詞로 인해 죽게 된 유몽인에 대한 후대인의 애석함이 깃든 논평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63) 女史 : 古代 女官의 이름. 학덕이 있고 王后의 禮儀를 아는 부인을 가리킨다. 『周禮』「天官」<女史> : “女史掌王后之禮職, 掌內治之貳, 以詔后治內政.”『漢書』「外戚傳下」<班婕妤> : “陳女圖以鏡監兮, 顧女史而問《詩》.”唐 劉知幾, 『史通』「史官建置」 : “隋世王劭上疏, 請依古法, 復置女史之班, 具錄內儀, 付於外省.”明 沈德符, 『野獲編』「宮闈」<女秀才> : “凡諸宮女曾受內臣敎習, 讀書通文理者, 先爲女秀才. 遞陞女史, 陞宮官, 以至六局掌印.”
- 64) 원문은 委姒이다. ‘姪’은 文王의 어머니인 太姬을 가리키고, ‘姒’는 武王의 어머니인 太姒를 가리킨다. 덕 있는 부인의 상징이다.
- 65) 『어우집』과 국도본의 상부사 전문을 번역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칠십 먹은 노과부, 단정히 거처하며 빈방을 지키고 있다. 女史의 시를 익히 외웠고, 委姒의 가르침도 자못 알고 있다네. 이웃 사람은 개가하길 권하며 잘생긴 남자 얼굴이 무궁화꽃 같다고 하나, 하얗게 센 머리에 화장을 한다면 어찌 연지 분가루에 부끄럽지 않으리오?(七十老嫗婦, 善男顏如槿, 白首爲春容, 寧不愧脂粉.)”(목활자본 『어우집』) “칠십 먹은 노과부, 단정히 거처하며 빈방 지키고 있는데, 이웃 사람은 개가하길 권하며 잘생긴 남자 얼굴이 무궁화꽃 같다고 하네. 일찍이 女史의 시를

서도 국도본이 목활자본 『어우집』보다 이른 시기의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의 사례로 종합해 보건대 목활자본 『어우집』보다 목호고와 국도본 및 규장각본 ①, 규장각본 ② 등이 시기적으로 초고본에 가까운 필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목호고와 국도본 및 규장각본 ①, 규장각본 ② 간의 선후 관계는 어떠할까?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어우집』에 「奉別謝恩奏請使李月沙 廷龜 四赴燕山詩序」(권3)로 수록된 작품이 국도본과 목호고에서는 각각 「奉別謝恩奏請使李月沙 延龜 四赴京序 幷詩」(국도본 11번)와 「奉別謝恩奏請使李月沙 延龜 四赴燕山律詩五首並序」(목호고 54번, 105면)로 실려 있는데, 각 제목들이 ‘四赴京序 幷詩’(국도본)→‘四赴燕山律詩五首並序’(목호고)→‘四赴燕山詩序’(『어우집』)와 같이 필사본에서 목활자본으로 그 제목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각 작품 말미에 수록된 시 또한 국도본에서는 “遂爲之序而詩, 詩曰”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목호고에서는 “遂爲之詩曰”로, 『어우집』에서는 ‘遂爲之詩’로 되어 있어, 각 이본의 순서가 “국도본→목호고→어우집”임을 짐작케 한다.⁶⁶⁾

읽었고 妊姒의 가르침도 조금 알고 있으니, 하얗게 센 머리에 화장을 한다면 어찌 연지
분가루에 부끄럽지 않으리오?(七十老嫗婦, 端居守空壺, 傍人勸之嫁, 善男顏如槿, 菴讀女史書, 梢知妊娠訓,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국도본 20번 작품) 필자가 보기에는 국도본의
수록작이 좀 더 초고본에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한다.

- 66) 한편, 이 작품에 수록 배열된 시 또한 그 순서가 국도본과 목호고에서는 ③과 ④로 배열된 것이 『어우집』에서는 ④와 ③으로 바뀌어 있다. “遂爲之序而詩, 詩曰(국도본)[遂爲之詩曰(목호고)], ① 幼年文字少陳思, 笑殺時賢好作師, 從此世間多側目, 可能朝著暫揚眉, 山林豹隱修倫紀, 虬墨鯉生竊覬闕, 白首回車知太晚, 至今雲路轉嶽崎. ② 榮華磨滅有誰知, 黃卷遺聲子若台, 金石辭鑄君不讓, 馬揚藩蓬我何窺, 功加慥慥千篇累, 事在寥寥萬世遲, 人世勛名今略盡, 一時濡滯兩何悲. ③ 憶曾書輜選儒臣, 文墨微才踵後塵, 幾度東朝趨殿陛, 半年西塞逐蹄輪, 蒼顏俱作清時散, 玄鬢難回妙歲春, 誰識兩翁霜後節, 相看不媿古之人. ④ 無黨無偏吾道公, 仲尼南北又西東, 君親之外義雖重, 正直爲心神可通, 蓼莧撐腸幼壯老, 詩書衛座始衷終, 軺軒金帶俱踰分, 頭白江湖一釣翁. ⑤ 前年三渡玉河橋, 此日何堪倦使輶, 衰後可知筋力少, 痘中方覺道途遙, 親賓攀袂淚沾軾, 老婦出門魂欲消, 良苦辨誣偏惱子, 文章誰勸動天朝.” ⇒ “遂爲之詩(『어우집』), ① 幼年文字少陳思, 笑殺時賢好作師, 從此世間多側目, 可能朝著暫揚眉, 山林豹隱修倫紀, 虬墨鯉生竊覬闕, 白首回車知太晚, 至今雲路轉嶽崎. ② 榮華磨滅有誰知, 黃卷遺聲子若台, 金石辭鑄君不讓, 馬揚藩蓬我何窺, 功加慥慥千篇累, 事在寥寥萬世遲, 人世勛名今略盡, 一時濡滯兩何悲. ④ 無黨無偏吾道公, 仲尼南北又西東,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묵호고의 편찬시기를 유몽인의 생애 말년으로 확정한 바 있어 국도본과의 선후 관계에 있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묵호고에 대해 1832년(순조 32)에 간행된 목활자본 『어우집』보다 앞선 시기의 판본으로 유몽인 자신에 의해 1621년(辛酉年, 광해군 13년) 가을 이후에서 금강산 표훈사에 온거하는 1622년 9월 이전의 일 년 사이에 편찬되었음이 확실시 된다고 한 바 있다.⁶⁷⁾ 그러나 그 근거로는 다음 『어우집』에 누락된 “余亡室貞夫人申氏……”로 시작하는 장편의 글에 포함된 “鬼之不來西江, 已三年, 辛酉秋”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유몽인의 부인 申氏가 죽은 해가 1619년이고 부인이 죽은 당해년을 포함하면 그 3년 뒤는 1621년 辛酉年으로 연보에서 저술을 정리한 시기와 일치하므로 묵호고가 유몽인 자신의 손에 의해 직접 정리된 산문집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余亡室貞夫人申氏……”로 시작하는 글⁶⁸⁾이 1621년에 작성되었다는 근거는 되지만, 『묵호고』 자체를 1621년에 유몽인 자신에 의해 편찬된 문집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묵호고를 국도본, 『어우집』 등과 비교해보면, 묵호고보다 국도본이 이를 시기의 필사본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가령 국도본의 12번째 수록작인 「燕京沿路可遊者記送冬至副使尹昉可晦參知」가 동일한 제목으로 묵호고(9번)와 『어우집』(『於于集』後集 권4, 537면)에 수록되어 있으나, 국도본에는 수록되어 있는 장편의 시가 묵호고와 『어우집』에서는 공히 누락되어 있으며⁶⁹⁾ 또 국도본의 15번 작품인 「答濬源殿參

君親之外義雖重, 正直爲心神可通, 藝竟擇腸幼壯老, 詩書衛座始衷終, 軺軒金帶俱踰分,
頭白江湖一釣翁. ③ 憶曾書幄選儒臣, 文墨微才踵後塵, 幾度東朝趨殿陛, 半年西塞逐蹤輪,
蒼顏俱作清時散, 玄贊難回妙歲春, 誰識兩翁霜後節, 相看不媿古之人. ⑤ 前年三渡玉
河橋, 此日何堪倦使輶, 衰後可知筋力少, 痘中方覺道途遙, 親賓攀袂淚沾軾, 老婦出門魂欲消,
良苦辨誣偏憐子, 文章誰勸動天朝.” 이로 보건대 역시 국도본과 묵호고가 『어우집』보다 선행본임을 추정케 한다.

67) 신익철, 앞의 책, 162~163면에서는 “1621년 辛酉年 가을 이후에서 금강산 표훈사에 온거하는 1621년 9월 이전의 일 년 사이에 편찬되었음이 확실시 된다.”고 했는데, 인용문의 두 번째 ‘1621년’은 ‘1622년’의 오기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대로, 유몽인이 금강산에 들어간 시기는 ‘1622년 가을’이다.

68) 『默好先生文集』, 389~423면.

奉尹~~世弼~~書와 같은 글이 묵호고와 『어우집』에서는 각각 「答濬源殿參奉尹~~弼~~世書」(37번, 63면)과 「答濬源殿參奉尹~~弼~~世書」(후집, 권4)로 그 이름이 올바르게 교정되어 있다.⁷⁰⁾ 또 국도본의 「送冬至副使鄭士信 令公谷神子序」(6번)는 묵호고와 『어우집』에서 각각 「送冬至副使鄭令公谷神子序 士信 效國語」(17번, 29면)과 「送冬至副使鄭令公谷神子士信序 效國語」(후집 권3)로 실려 있는데, 묵호고와 『어우집』에는 포함된 '效國語'라는 소주가 국도본에는 생략되어 있다.⁷¹⁾ 또 묵호고와 『어우집』 수록 작품의 제목에는 포함된 '詩'라는 단어가 국도본에서만 빠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⁷²⁾ 국도본에 수록된 「行窯記」(21번)의 경우 작품 서두와 말미는 “余見龜螺蠻蝸之行, (...) 名曰行窯.”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묵호고와 『어우집』의 수록작에서는 공히 “余觀龜螺蠻蝸之行 (...) 名曰行窯, 使余記”(묵호고 188번, 482면 및 『어우집』 권4)로 되어 있다. 또 국도본의 22번째 작품인 「送崔簡易翁之杆城郡序(并詩, 姓崔名豈, 亦以文章名焉.)」는 묵호고와 『어우집』에서는 공히 「送崔簡易

- 69) “令人睛奪足側” 뒤에 “耳詩曰”부터 5언 16구의 다음 시 “莫道浦名歧, 元未一水分, 朝宗萬波同, 河濟安足云, 悠悠一虎帆, 蒡是無心者, 何往不通津, 楊泣非夫也, 孤嘯晚倚柱, 一點明西林, 南起憂邊懷, 北送戀關心, 共昏不誤期, 耿耿如有信, 一瞬撫千里, 仍得觀心印.”은 국도본에만 수록되어 있고 묵호고와 어우고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국도본이 가장 이를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묵호고는 전대의 필사본 중 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산문만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 70) 한편 이 작품은 국도본과 묵호고에서는 마지막 구절이 ‘姑候面悉 面悉再拜’로 동일한데, 『어우집』에서는 ‘姑俟盍箴’로 수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국도본과 묵호고는 목활자본 『어우집』보다는 자구상으로 상호 근접한 필사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국도본과 묵호고 사이에도 그 선후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
- 71) 그런데 『어우집』에 수록된 다음의 시가 국도본과 묵호고에는 공히 생략되어 있다.“一歲佳辰日南至, 萬邦筐篚集明庭, 鮫綃或間驪珠煥, 朱鬢還兼碧闕熒, 麗幣玉階天逼仄, 趁班瓊珮曉當丁, 誰知東國奎精聚, 再籍芳名千佛經.”(『어우집』 후집 권3, 「送冬至副使鄭令公谷神子士信序 效國語」) 『어우집』의 수록 시는 다른 이본에서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72) 묵호고와 『어우집』에 각기 「送南原府使高用厚詩序」(32번, 51면)와 「送南原府使高用厚詩序」(권3)로 되어 있는 제목이 국도본에는 「送南原府使高用厚序」(9번)으로 되어 있고, 묵호고와 『어우집』에는 「送戶部尙書李聖徵令公奏請天朝詩序」(40번, 68면)와 「送戶部尙書李聖徵廷龜奏請天朝詩序」(권3)로 되어 있는 제목이 국도본에는 「送戶部尙書李聖徵令公奏請天朝序」(10번)로 되어 있다. 작품 말미의 ‘其詩曰’이라는 대목도 묵호고와 『어우집』에만 보이고 국도본에는 안 보인다.

之杆城郡詩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국도본의 細註를 생략시키고 그 내용을 제목 안에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역시 공통된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국도본의 「送李培迪迪夫知子春縣序 子春永春縣號」(45번) 또한 묵호고와 『어우집』에서 각각 「送李培迪迪夫知子春縣序」(30번, 48면)와 「送李培迪迪夫知子春縣序」(후집 권3)로 수록되어 있는데, 공히 국도본의 세주인 “子春永春縣號”를 누락시키고 있다. 또 국도본의 「哭表兄洪師古挽章 遵」(39번)은 묵호고와 『어우집』에서 각각 「哭表兄洪師古挽章」(115번, 242면)과 「哭表兄洪師古哀辭」(『어우집』 후집 권5)로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국도본에서만 表兄 洪師의 이름이 ‘遵’임을 명시하고 있다.⁷³⁾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국도본의 필사된 작품들이 묵호고에 필사된 작품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음을 다양하게 드러내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묵호고는 松泉 趙威明(1640~1685)이 원소장자이며, 국도본은 1807년(丁卯, 순조 7년)에 필사된 이본이다. 이는 17세기 중후반에 조위명이 소장한 묵호고가 저본으로 삼아 필사한 원 문집이 150여년이 흐른 시기에 필사된 국도본이 저본으로 삼은 문집보다도 후대에 개고된 것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묵호고는 유몽인이 직접 정리한 문집이라기보다는 국도본의 저본을 비롯한 여러 계통의 초고본을 대상으로 17세기 중후반에 산문만을 필사한 작품집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규장각본 ②에서는 이 작품의 말미가 묵호고와 달리 ‘孰不感化’ 이하가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⁷⁴⁾ 전술한 바와 같이 묵호고 47번, 48번에 각각 초고와 개작원

73) 묵호고를 별개로 하더라도, 국도본이 『어우집』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횡들은 적지 않다. 가령, 국도본의 「遊頭流錄」(47번)은 묵호고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어우집』에는 「遊頭流山錄」(『어우집』 후집 권6)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국도본에서는 작품 말미에 “萬曆三十九年辛亥四月日, 高興後人民菴默好翁 柳夢寅 識.”으로 되어 있던 것이 『어우집』에서는 “萬曆三十九年辛亥四月日, 默好翁 記.”로 수정되어 있다. 전술했듯이 유몽인은 스스로 자신의 호를 良菴, 默好子 등으로 칭하고 자신의 문집을 『良菴集』, 『默好集』, 『高興稿』 등이라 명명한 바 있었는데, 국도본에서는 “高興後人民菴默好翁”과 같이 이러한 자신의 여러 호들을 거의 모두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우집』보다 초고작의 경향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74) “(孰不感化 이하) 而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 區區習尚, 不必強而同之也, 今茲萬壽之日, 萬國咸會, 其俗之與中國異制者何限, 吳儂楚儈, 各殊其音, 蜀鬚趙驪, 亦異其風, 琉球之文身不

고로 중복되어 수록된 작품 「鄉校里報禮曹狀後題」가 48번 개작원고에 해당되는 작품만 규장각본 ❷에 수록되어 있다.(규장각본 ❷ 21번 수록) 이로 보건대 규장각본 ❷는 시기상으로 『어우집』보다는 선행하되 묵호고보다는 후대의 이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도본의 「於于公伸冤大臣獻議」(52번)는 『어우집』에 「獻議」(후집 권6 附錄)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두가 일부 섞인 글의 서두가 『어우집』에서 누락되어 있다.⁷⁵⁾ 이 글은 정조대에 신원된 직후 작성된 獻議이면서 후대 목활자본 『어우집』의 동일 작품에 빠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필자가 국도본 서문의 작성시기인 丁卯년을 1794년(甲寅, 정조 18) 신원된 아래 1832년(壬辰, 순조 32) 간행되기 이전의 1807년(丁卯, 순조 7)으로 추정한 것을 뒷받침 한다. 아울러 국도본에는 신원 직후 정조의 명에 의해 작성된 謚狀(53번)과 直提學 徐有防의 撰(54번)이 독립된 두 개의 글로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어우집』에서는 이 두 개의 글이 한 편의 行狀으로 합쳐져 있다. 이는 목활자본 『어우집』의 편집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⁶⁾ 게다가 「直提學徐有防撰」(국

可洗也，刺麻之剃髮不可長也，西域之綯衣不可脫也，北虜之辮髮不可解也，况乎箕子之遺風，先王之經制，自有朝鮮之舊俗，人臣爲君喪盡禮，有何所傷於義乎，此尤可憤者也，任其國俗，不使遠人議罪於其國，豈非閣下之盛賜乎，伏願老爺閣下垂仁焉，須至呈者。”가 규장각본 ❷에서 누락되어 있다. 해당 대목은 묵호고와 『어우집』에 모두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 75) 『어우집』의 「獻議」에 누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794년(甲寅, 정조 18) 5월 12일에 禁府에서 임금께 啓目을 올림에 서류를 덧붙여서 재가를 받았으므로，西部에 거처하는 幼學 柳珠에 대한 (임금께 올리는) 上言回啓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하셔서 대신들과 의논했으나 奉朝賀 鄭存謙，領議政 洪樂性，領中樞府事 蔡濟恭이 병으로 (그 논의한 의견들을 임금께) 獻議하지 못했습니다.(甲寅五月十二日，禁府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西部居幼學柳珠，上言回啓，判內議于大臣爭處，亦教是平等以，議于大臣是白平則，奉朝賀 鄭存謙，領議政 洪樂性，領中樞府事 蔡濟恭，病未獻議云行.)”，「於于公伸冤大臣獻議」(국도본 52번) 이 글은 묵호고를 비롯한 여타 필사본에 모두 빠져 있다.
- 76)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於于堂柳公謚狀」(국도본 53번) + 「直提學徐有防撰」(국도본 54번) → 徐有防，「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

도본 54번)의 끝은 “資憲大夫原任吏曹判書兼奎章閣檢校 直提學達城徐有防, 撰
乙卯二月初五日.”으로 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어우집』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국도본을 통해 이 글의 작성시기가 정확히 乙卯년(1795년, 정조 19) 2월 5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본고는 필사영인본 『목호고』와 규장각 소장 필사본 2종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종 등 총 4종의 필사본을 문집총간본(목활자본) 『어우집』과 아울러 교감함으로서, 기왕의 『어우집』 판본에 누락된 작품들을 새로 추가하고 일부 각편의 창작시기와 수신자를 고증하는 한편, 중복 수록된 작품을 통해 일부 각편의 개작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본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어우집』 소재 각 텍스트의 정확한 창작정황과 개작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보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몽인 문학론과 작품의 염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한 예비적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4. 20), 심사일(2016. 5. 20), 게재확정일(2016. 6. 10)

禁府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於于堂柳公行狀(『於于集』後集 권6) 국도본 수록작과 『어우집』 수록작은 제목에도 약간의 차이가 보이며 아울러 본문의 자구상에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 국도본에는 『어우집』에 없는 몇 개의 세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가령, 국도본 본문의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괄호 안의 굵은 밑줄 표시는 『어우집』에 누락된註들이다. “大抵柳夢寅事蹟, 與儻誦之, 姮孺傳之, 不待老成長者從緩之說, 栗可驗(長者, 指其時委官李元翼, 義而欲釋之說.)”, “嘗遊南麓有詩曰, 滿城花柳擁春遊, 玉手停盃詠柏舟, 壯士忽持長劍起, 醉中當斫老奸頭, 書揭京兆府壁, 盖指三昌也(爾瞻, 承宗, 希奮三者之謂.)” 앞의註가 본문의 長者가 李元翼이며 그가 義로써 유몽인을 풀어주고자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뒤의 주는 본문의 ‘三昌’이 광해군 당시의 대북파 권세가였던 廣昌府院君 李爾瞻, 密昌府院君 朴承宗, 文昌府院君 柳希奮임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柳夢寅, 『於于集』, 한국문집총간 63
- _____, 1977 『於于集(附 於于野談)』, 景文社
- _____, 1997 『默好先生文集』, 경인문화사
- _____, 『於于集』 3권, 서울대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奎 4490
- _____, 『於于集』 23편, 서울대 규장각, 도서번호:奎 7496
- _____, 『於于集抄』 79편, 서울대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古 819.52-Y92e
- _____, 『於于集』 1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BA0238-5
- _____, 『義貞公於于柳先生文集』 77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古朝44-가 144
- _____, 『於于集』 1冊 69張,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서번호: K4-6263
- _____, 『於于集抄 全』 1冊 51張,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서번호: D3B-1696
- _____, 『於于集』 12卷 6冊,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도서번호: D03B-0698
- _____, 『於于集抄』 1冊, 고려대 소장, 도서번호: 경화당 D1 A48A
- _____, 『於于集抄選』 1冊, 고려대 소장, 도서번호: 대학원 D1 A48
- _____, 『柳於于集』: 「大清乾隆三十年歲次乙酉時憲書」, 觀象監 編, 고려대 소장, 도서 번호: 신암 C8 A3 1765) 걸표지 이면 제목
- _____, 『於于集』 93張, 연세대 소장, 도서번호: 고서(II) 811.98 유몽인 2
- _____, 『於于集』 3冊(全4冊), 연세대 소장, 도서번호: 고서(II) 811.98 유몽인 - 1~3
- _____, 『新刊於于堂遺集』 不分卷1冊 42張,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고서 810.819 유35ㅅ
- _____, 『於于集』 14卷7冊,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811.0819 유35ㅇ-2
- _____, 『於于集』 1권 1책,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도서번호: 성암 4-818
- _____, 『於于集』 3권 3책, 日本 東洋文庫 소장, 도서번호: 韓國典籍 目錄 879
- _____, 『高興稿』 1책, 日本靜嘉堂文庫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번호: 古3649-198
- _____, 『於于野談』, 1冊(41張), 도서번호:奎 11918
- _____, 2006 『어우야담』, 신의철 외 역주, 돌베개
- 『崇禎三丙子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일산古6024-77
- 朴宗采, 『過庭錄』, 서울대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古 4650 45

- 박종채(박희병 著), 1998 『과정록』, 돌베개
成大中, 『青城集』, 한국문집총간 248
유만주(김하라 著), 2015 「유몽인」, 『일기를 쓰다』1, 돌베개

2. 논저

- 김홍백, 2012 「유몽인의 「安邊三十二策」 연구 - 조선 중기 문학에서의 ‘政治’의 한 사례로서」, 『민족문학사연구』 48
신익철, 1993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 태도」, 『서지학보』 10
_____, 1988 『柳夢寅 文學 研究』, 보고사
안대희, 2005 겨울 「奇로 해석한 문학, 李奎象의 奇論」, 『문학과해석』 33

Abstract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books authored by Yu
Mong-in(柳夢寅)

Kim, Hong-baek

In this thesis, I collate "ø-woo-jip(於于集)"(wooden printed book) with "Muk-ho-go(默好稿)"(Manuscript), two Kyujanggak Collection(Manuscript), on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Manuscript). Therefore I supplement omitted-texts of "ø-woo-jip(於于集)", and I ascertain written date and receiver. Through duplicated texts, I examine thoroughly adaption process, sequential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e preparatory groundwork for analysis of a literary theory, texts. and it can be used as supplementary data to understand precise writing situation of individually written text.

Key words : Yu Mong-in(柳夢寅), ø-woo-jip(於于集), Muk-ho-go(默好稿)